EAST ASIAN LIBRARY APR 2 1982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8th FLOOR
TORONTO, CANADA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86 1982년4월1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April 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김 명 규
편 집 인：이 석 현
인 쇄 인：박 철 서
광 고 부 장：송 광 호

모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영·불어 습득에 오히려 도움 줘

토론토연구전담반 결론내려

◆모국어교육에 관한 획기적 보고서를 발표하는 모국어 전담 연구반 토니·실리포 반장

토론토교육위원회 모국어교육특별연구반은 29일 하오 기자회견에서 모국어교육 강화실시에 대한 10개월간의 조사와 청문회를 통한 각계각층의 여론을종합, 획기적인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동연구반은(1)영어나 불어이외에 제3국어(모국어)도 정규수업시간에 포함할것 (2)역사와 과학같은 정과목을 영, 불어이외에도 제3국어로 가르치고, 2개국어 혹은 3개국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실시할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는 노력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토론토 교육위산하학교에서 방과후나 주말에 모국어교육을 받는어린이들은 8천명가량 된다.

현재의 모국어교육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영어나불어 이외의 언어를쓰는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를 계속 보존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77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교육청은 제3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모국어교육 특별전담반 반장 토니·실리포는 이날 "정규수업시간에 모국어교육을 시키는것이 방과후나 주말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실리포는 모국어 교육의 강화는 영어가 모국어가아닌 학생들이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국어에대한 정확한 이해가 갖추어진 어린이가 새로운언어를 더욱 쉽고 빨리터득한다는 연구결과를 들었다.

보고서는 오는 가을학기부터 현재의 정규수업시간을 30분 연장하여 그 시간을 모국어교육에 할애할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모국어교육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규정하지않고"지역 학교와사회 특수성을 고려, 융통성있는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반은 우선 이번 가을학기부터 5~10개교에 새로운 모국어프로그램을 실시, 진행과정을 살펴볼 것을 건의했다.

전담반은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싶은 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에 상관없이 교육위에 신청, 등록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은 특정언어를 사용하는 학교를게토화 시키는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실리포씨는" 그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생각지 않는다"며"게토화(소수민족 특정집단화)현상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때생기는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구반의 궁극적 목표는 소수민족이 그들의언어와 자아(Identity)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해방되어 진정한캐나다시민이 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보고서는 오는 4월22일 교육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심의된다.

보통 토론토 시교육위의 정책은 메트로·토론토 각 구역교육위에 파급되며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모국어 연구반은 작년11월17일 중간보고서를 작성, "학생들이 캐나다시민으로서 일체감을 가지려면 에트닉 구룹으로서의 긍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이민자학생들이 언어장벽 때문에 학업에 흥미를 잃고 성격이 비뚜러지므로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해서도 모국어의 정규학과목 설정이 요청된다고 지적했었다. 토론토 초, 중, 고학생 50%는 모국어가 한국어등 영, 불어 외의 제3국어이다.

〈 김종환 기자〉

비자수수료 $100

미국, 이민수속

(서울31일＝연합)주한미대사관을 비롯한 해외미대사관은 오는 1일 한국이민자의 비자수수료를 2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 키로 했다.

대사관 당국자는 20달러의 비자수수료는 1952년에 책정 그동안의 물가고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신형탱크 한국군보유

대한 군사차관 증액

(서울30일＝연합)주한미군이 보유하고있는 M48A5탱크가 80년 중반에는 M60A3S 탱크로 대치되며, 주한미군이 쓰고있는 M48A5탱크는 한국군이 사용하게될 것이라고 29일 와인버거 국방장관이 밝혔다.

와인버거장관은 또한 미행정부가 83회계년도 에는 대한군사 차관액을 82년도보다 25%늘 려 2억천만 달러로 증액토록 했다고말했다.

83회계년도 대한군사 차관의 상환은 3년거치 9년 상환으로 되어있어 한국의 외환사정에 크게 지장을주지 않을 것이라고 와인버거씨는 말했다.

한미 국방협력 강화

레이건, 전대통령에 서한

(서울30일＝연합)로날드·레이건 미대통령은 29일 한미양국의 보다 긴밀한방위협력을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대통령에 보냈다.

82년도 팀스피릿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즈음한 2일간의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캐스터· 와인버그 미국방장관이 전달한서한에서 레이건 대통령은수교이후 백년간 한미양국은 강력한 유대를 이루어 동아시아의 자유를 위해 공헌해왔다고 말했다.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 은, 주식, Bonds, RRSP에 대한 문의는
361－3428(B), 447－1374(R)：강 상 욱
RRSP를 왜 남에게 관리시키는가? 자기돈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존 RRSP를 자기관리 RRSP로 옮기는 데는 비용은 전혀 들지않으며, 유지관리비로 1년에 $100만내면 된다. 자기가 관리하면 투자결정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함병섭이사장 재선

한인회, 신임이사 10명 선출

◆함병섭이사장

토론토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26일 한인회관에서 열린82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현 함병섭이사장을 재선하고 신임부이사장으로는 이대환씨와 최복기씨를 선출했다.

블루어에서 동양한약상사를 운영하는 한의사 함씨는 81년도까지 초대 코리아타운 번영회장을 지냈다.

31일 함이사장은 "이사회는 회장단을 중심으로한 집행부를 견제, 세부규정 등을 결정짓는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결정짓는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대신한다."면서 "그동안 한인회 운영규정등에서 모순점을 많이 발견, 하나씩 고쳐 나가겠다."고 신임 포부를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10명의 이사를 새로 선출하고 1명의 이사를 보선했다.

새로 선출된 신임이사로서부이사장이 된 부동산업자 이대환씨는 현재한인회 캐라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며, 최복기씨는 81년까지 실업인협회 총무직을 지냈다. 지금까지 부이사장은 문가자씨 1명뿐이었다.

한인회 이사회는 30명으로 구성되며 1년마다 10명씩 재선출된다. 이사임기는 3년이며, 이사장단 임기는 1년이다.

◆신임이사

김문고(토론토천주교사목위원장)
장필규(전 미시사가한글학교장)
나덕현(전 동우회부회장)
박성교(한국 노년회부회장)
최복기(전 실협총무, 민중신문 기획실장)
최회권(캐라반운영위원)
장영대(호남향우회장)
김의애(여대생)
이대환(캐라반 운영위원장)
박광철(전 동우회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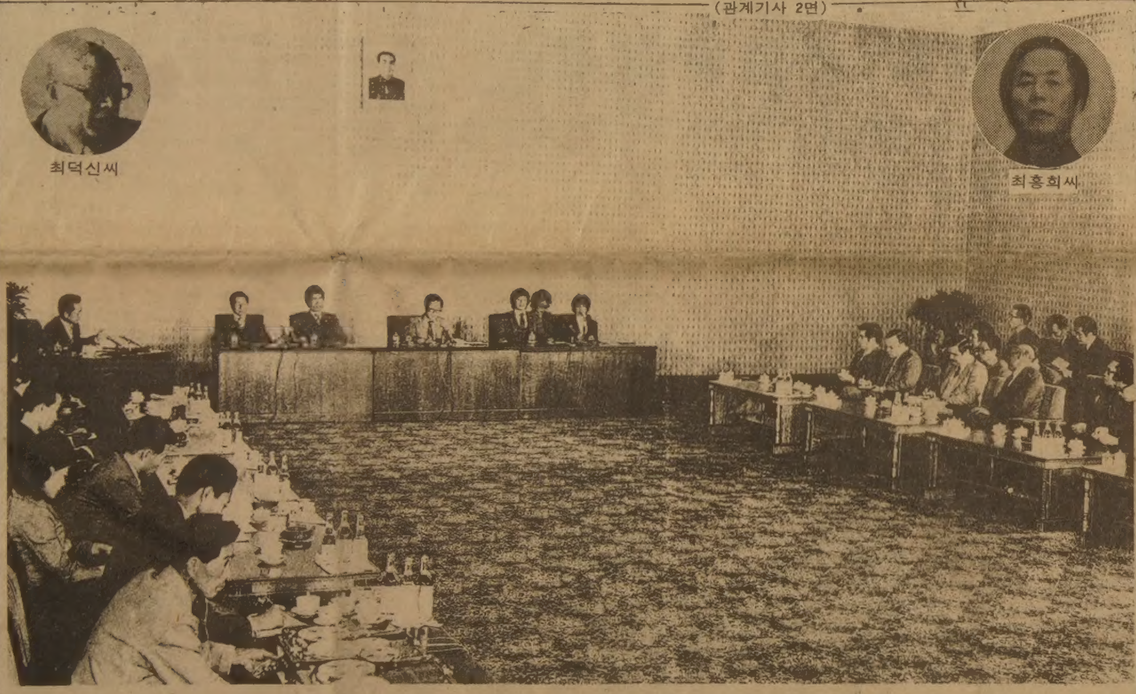
◆보선이사

장영(학생)

김일성 찬양에 광분

－최홍희·최덕신씨 평양 기자회견서－

(관계기사 2면)



◆최홍희씨의 기자회견 광경. 가운데 안경낀 모습으로 연설문을 읽고 있는 최씨와 그 오른쪽옆으로 박정태 태권도 사범이 보인다. 최씨는 연설문을 읽는 도중 연신 땀을 닦았다. 가운데 김일성의 초상화가 내려다보고 있다.(사진은 노동신문에 게재된 것이다.)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점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부활주일
새벽 연합예배

할렐루야!
주님 다시사신 기쁨에 부활절을 맞이하여 시내 각 교회가 연합으로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예배에 함께 동참하실수있기를 바랍니다.

일시：1982년4월11일(부활주일)아침6시
장소：SUNNY BROOK PARK
(Leslie at Eglinton Ave. E.)

※당일입구에서 안내합니다.

주최：토론토지구 교역자회
주관：토론토제일한인장로교회

점심특별 스페샬
기 간：1982년4월 말 까지
시 간：12시～오후2시까지(월～금)
$3.50：냉면, 짜장면, 곰탕, 짬뽕, 게장백반
$5.00：유부초밥, 생선초밥, 회덮밥, 김초밥
4월12일부터 해장국 출현
오전9시～밤1시
한국서 일류요리사 한국관에 오다!
한식및 궁중요리사：김옥자 • 일식전문요리사：김우현
한 국 관
대표：나 옥 녀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536－0290, 531－0277

결혼 예물, 보석시계

다이아몬드
반 지
목걸이
팔 찌
귀걸이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본색 드러낸 최홍희·최덕신

"가는 곳마다 궁전, 보는 것마다 경이"

편집자주

북한과 총을맞대고 싸웠던 한국의 최고위급 장성 최홍희, 최덕신씨는 작년북한체재중 적극적이며 노골적으로 김일성및 김정일개인숭배와 북한찬양에 급급했음이 드러났다. 이들의북한방문을 담은 토론토 총영사관의 비데오 테입에의하면 전외무장관이며 서독주재대사를 지낸 최덕신씨(미국거주)는 81년6월22일부터 7월18일까지 약 한달간의 북한방문을 끝내고평양을 떠나기전 기자회견연설에서"북반부는 낙원"이며"김일성주석은 인류사가 알고있는 모든 성인들을초월한 위대하 부"이라고 극찬했다.

80년9월과 81년9월 2차례 북한을 방문한 최홍희씨는 또 두번째 평양방문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일성을"위인들중 가장 위대한 결출절세의 위인"으로,"내 조국(북한)은 의식주의 걱정이없고 무병장수하고 세금이없는, 인류가이상으로 그리던 참 세상으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19일 이상훈 총영사관저에서 처음으로 이 비데오를 본 30명 교포 들은 두 최씨의 언동에 크게 놀랐다. 한 단체간부는 "나는 그들이 평양서 주위사정때문에 김일성 찬양에박수나 보낸 수동적 행동을 한 줄 알았으나 이 비데오를 보니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졌나를 느꼈다. 이 비데오는 교민 모두가 한번씩은 꼭 보아야할 성질의 것이다"고 말했다. 다른교포는"인간이 180 도로 변할수 있는 최대치를 오늘 본 것같다"면서 그들의 행동을 개탄했다.

이 비데오는 평양TV 에 나온 화면을 한국서 잡아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최덕신씨의 연설문 전문과 최홍희씨의 연설문 발췌를 게재함으로써 독자들이 대북한관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최홍희씨 연설은 본사가 입수한 81년10월20일자 북한 노동신문을 그대로 실은것이다.

최덕신씨 연설전문

내외동포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국의 북반부를 떠나면서 여러분 하고 이러한 기회를 가진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국의 북반부는 낙원입니다.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찾아본 여기의 북반부 현실은 이역에서 지금까지 듣고 상상한 모든 것을•훨씬 초월하고 있읍니다.

여기는 가는 곳마다 궁전이고, 보는 것마다 경이적인 것이며, 듣는 것마다 가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기는 진정한 무릉도원이요, 인류가 염원하던 이상향입니다.

사람의 힘의 위대성을 탄복합니다. 초라하던 옛 모습은 흔적도 없고, 세인이 선망해 마지않던 진정한 복지국가를 반도 이북에 건설해 놓은 이 인력이야 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평소에 본인은 어떻게 하면 우리 겨레를 위대한 민족으로서 만들고, 언제 가면 그 염원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생각하였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와서 보고, 우리 겨레가 벌써 위대한 민족으로서 세계에 당당히 등장하였음을 자부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본인은 이것이 오늘 세계적으로 신봉되고 있는 주체사상의 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주석님은 세계적인 위대한 영수이십니다. 과연 주석님은 인류사가 알고 있는 모든 성인들을 초월한 위대한 분이시며, 동서고금에 알려져 있는 모든 위인들의 출중한 성품들을 다 체험하신 결출한 영걸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해박한 지식과 비범한 예지, 넓으신 도량과 포용력, 무한히 깊으신 인정과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그분께서 계시어 이 나라가 이처럼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고, 우리민족이 또한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주석님에 대한 경모심이 더욱 과열되었읍니다.

지난 날 항일전에 참가했던 본인은 주석님을 명장으로서만 우러러 왔는데, 주석님은 위대한 영장이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철학가이시며, 위대한 교육가이시고, 위대한 건축가이시며,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본인은 시초에 조국동포들이 그분을 경애하는 어버이로 칭송하는 그 참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그것이 국민 스스로의 존경심의 표시임을 알게 되었읍니다.

김일성 주석님을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영예이며 긍지입니다. 인생 말년에나마 이 신념을 간직한 본인은 무한히 행복스럽습니다. 주석님의 귀체만강을 축원합니다. 조국의 미래, 민족의 장래는 양양합니다. 주석님의 뜻을 어떻게 받드는가 하는 것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사입니다.

주석님의 뜻과 정책은 민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서재속에서가 아니라, 민중 속에서 파악하신 민의이기 때문에 그 뜻을 그대로 받들어 집행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 조국에서 주석님의 뜻과 인품과 덕망을 그대로 지니시어 여러분들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모시는 김정일 선생님을 주석님의 위업을 보좌해 드리시고 계승해 나가시는 영도자로 추대한 것을 너무나도 응당하고 잘된 일입니다.

그 분은 사상 이론에 능통하시고, 영도 예술에 전능하신 절세의 기인이시며, 다박다박하고 인덕이 높으신 영명하고 자애로우신 위인이십니다.

민족의 장래가 안심되고 미래가 낙관됩니다. 김정일 지도자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통일에로 가는데서는 고려민국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빈틈 없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저는 이 방안을 절대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한 전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최 덕 신

1952：군사정전회담 한국측 대표

1953.10：자유중국 방문시 이승만대통령 수행

1961～63：외무장관

1964：서독주재대사(박대통령 독일방문시)

최홍희 연설발췌문

지난해에는 수십년만에 찾아왔으니 천지개벽한 조국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던것은 어찌보면 당연지사라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1년이라는 동안에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대해 본인은 실로 경탄이라는 말로밖에 더 표시할 수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있지만 1년동안에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없는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 조국에는 격언에도 없는 이 말이 그대로 적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다녀간 해외교포들이 여기를 지상천국이라고 말하는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이들은 의혹을 표시하면서 어떻게 그곳에 가서 살아보지도 않고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겉면을 보고 그렇게 평가할수 있는가고 반문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소고기맛을 알자면 세계의 소를 다 잡아먹어보아야 알겠는가, 한점의 소고기를 먹어보아도 소고기맛을 알수 있지 않는가.》라고 말해주고 그렇게 의문된다면 직접 조국을 방문해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사실 내 조국은 모든 사람들이 외식주의 걱정이 없고 무병장수하고 세금이 없고 문명한 나라입니다. 이것이면 인류가 리상으로 그리던 참세상으로서 손색이 없는것입니다.

본인은 외람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여기 부족점도 좀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등 각지, 각 방면을 다 돌아보아도 어기 결점을 발견할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여기 실정을 파악하면 할수록 이 사회의 우월함과 좋은 점만 발견하게 되는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기 경제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해 1년사이에 평양에서 새로 건설되였거나 지금 건설중에 있는것만 보아도 세계굴지의 인민대학습당, 미림갑문, 창광거리, 한개 도시를 방불케 하는 문수거리…

참으로 창조와 건설이 매일매시각 놀라보게 진척되고있는 조국의 경제력은 대단한것입니다.

전국민의 단결력은 세계에 없고 력사에 없는 무비의 힘, 무적의 힘입니다. 령도자와 국민이 일심동체이고 민중의 마음이 한결같은 이런 나라는 그 어떤 강국도 당할수 없읍니다.

어른뿐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생각을 같이하고 움직임을 같이 하는 나라, 이것은 막강한 국력의 본원이고 가장 기본적인 국력입니다.

확실히 내 조국은 배울것이 많고 얻을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현세계의 향도지침인 위대한 주체사상의 발상지, 자력으로 식민지예속에서 해방되여 자주독립을 성취하였고 오늘은 세계선진국대렬에 당당히 들어선 이 조국이야말로 분명히 세계의 약소민족, 발전도상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할 표본이라고 인정합니다.

자연도 옛 자연 그대로이고 국민도 옛 국민 그대로인데 어찌하여 가장 락후하고 초라하던 나라가 30년도 되나마나한 기간에 이처럼 놀라운 도약을 기하여 세계의 정상에 오를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령도자의 위대성에 기인된다고 본인은 확신하는바입니다. 한가정도 잘살게 되자면 집주인이 구실을 잘해야 하는것처럼 나라의 권위와 국사도 나라의 정사를 펴는 령도자에 의해 좌우되는것이라고 봅니다.

김일성주석은 력사가 알고있는 위인들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하고 걸출하신 절세의 위인이시고 거인이십니다.

세상만물가운데는 특수한것이 있기마련인데 관물의 령장인 사람들속에 특별히 우뚝 솟은 분, 온 인류의 경모를 받고계시고 온 인류의 운명을 밝혀주시는분, 《하늘이 낸 위인》이라고 말할수밖에, 없는분, 그분이 바로 우리 민족의 령도자이시고 세계약소민족의 정신적지주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과시 주석은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 영걸이시며 무비의 도량과 포용력, 무한한 인덕을 겸비하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그 어떤 강적도 초풍기절하게 하시고 사나운 자연도 무릎꿇고 절을하게 하시는 무상의 지략과 담력의 소유자이시고 영원불멸할 우주의 광망이십니다.

력사상에 가장 영광찬란한 업적과 위훈을 세우신 주석께서 계시여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 행복과 영광이 있으며 주석을 모시여 우리 겨레는 지상지고의 행운을 지니였습니다.

—민족통일이 불원간에 성취되리라는것은 정해진 리치입니다.

세계적인 령수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을 위해 누구보다 깊이 심려하심으로하여 통일조국은 반드시 이룩될것입니다.

위대한 주석께서 몸소 구상하시고 천명하신 련방국가창립방안은 정당한 통일대강입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에 상반되는 제도를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면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방법이외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본인은 련방국가에 의한 통일방안을 절대 지지합니다.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하자면 온 겨레가 대단합을 이룩해야 하며 그러자면 살인과 폭압, 분렬과 전쟁을 일삼는 역적의 집단인 전두환도배는 반드시 제거되여야 합니다.

가장 잔인무도한 군사불한당이

기록영화로 정체밝혀져
상상초월한 아부

고 야만의 무리들인 이자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없고 평화적통일도 실현할수 없습니다.

이 반역도배들은 이미 온 겨레의 일치한 증오와 지탄을 받고 배격당하였으며 그의 멸망은 시간문제입니다.

미국은 우리 겨레의 저주와 원한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전두환일당을 비호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민족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이남에 끌어들인 핵무기와 함께 미군을 시급히 철수해야 합니다.

본인은 조국통일을 위해 미력이나마 다 바칠 각오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것은 죽는것인데 그보다 더 무서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의리를 저버리는것이며 사람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오래 사는것인데 그보다 더 기쁜것은 의리를 지키는것입니다.

본인은 민족통일위업에 헌신복무할 사명감을 안고 필사분투할 결심밑에 사랑하는 조국을 일시 하직하려 합니다.

끝으로 겨레의 은인이시고 어버이이시고 령수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만수무강과 경모하는 김정일선생님의 옥체만강을 삼가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우리 세대에 와서 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을 령도자로 모심으로 하여 오늘 위대한 민족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되였습니다. 주석께서 쌓아올리신 이 영광의 공적을 후세에 길이 이어나가며 빛내이는 것은 우리 겨레의 최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주석의 위업계승자를 바로 추대하여야 성취될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에서 영명하신 김정일선생님을 주석의 위업을 보좌해드리시고 이어나가실 지도자로 높이 추대한것은 매우 잘된 일입니다.

조국이 오늘과 같은 경이적인 발전을 기할수 있게 된 그 기저에는 위대하신 주석의 현명한 령도와 함께 다능다재하신 지도자선생님의 정력적인 령도활동이 안받침되였기때문입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지도자선생님은 사상리론의 천재이시고 령도예술의 영재이시며 고매한 덕망과 풍격을 지니신 향도의 거장이시며 력사의 성인중의 가장 거룩하신 성인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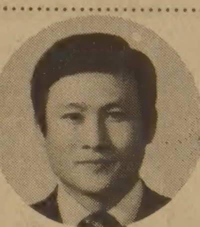
영명하신 지도자선생님을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기쁨이고 영광이며 행복입니다.

창창한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게 되니 더욱 힘이 솟습니다.

『주식회사법』 강연
정필주씨, 번영회주최

블루어 한인상가의 코리아타운 번영회(회장 장순채)는 지난26일 시내 클링톤하우스에서"주식회사 설립및 운영"이란 강연회 를 주최했다. 이 강연회에서연사 정필주씨는「주식회사」에대해 개괄적 설명을한후 교민들의 질문을 받았다.

지난가을 번영회가 발간한「주식회사 설립및 운영」이란 책자를 저술한 정씨는 "캐나다의 주식회사법에는 여러가지 장점이있어 교민들이 현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면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공인회계사(RIA)로 토론토에서 회계사무소를 개업하고있다.



◇강사 정필주씨

강연전에 중국계 토론토 시의원 잉·호프씨의 부인이며 보험회사대표인 호프여사의 단체보험소개가 있었다.

강연후 이자리에 모인30여교민및 번영회 회원들은 최홍회, 최덕신 씨의 북한 방문 기록영화 를 감상했다.

투자이민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투자액 ·전망·재정·대상
경영능력·고용규모 명시

투자이민(※한국일보3월24일자)신청자들이 작성해야할 사업계획서(Business Proposal)에는 신청자가투자, 경영할 사업에관한 모든 정보와 투자액 방법등이 명시돼야 한다. 온타리오주 산업무역성의 투자이민담당 소기업과(Small Business Operations Division)는 지난주 계획서 작성상의 요령으로 다음사항을 밝혔다.

(1)신청자의 성명, 주소

(2)사업내용：가능한한 구체적으로.

(3)업체의 위치：현 위치및 미래의 변경가능성, 빌딩의 모양, 리스, 당국허가여부. 지도도 첨부하면 좋다.

(4)경영진의 경력：신청및 경영진의 사업경력. 사업을 성공시킬 능력을 문서로보여야함.

(5)고용규모：풀·타임 직원수와 연간 필요한 임시직원규모. 장래 고용전망 (장기및 단기)

(6)시장성：상품의 공급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다. 또한 경영여부와 그 성격을 밝힌다. 시장 경쟁서의 전망.

(7)참고인：거래은행, 회계사, 변호사등 참고인들의성명및 주소.

(8)재정정보：ⓐ기존업체면 지난3년간의 재무제표 (재정보고서), ⓑ신청인의 자산, 부채, 타인에대한 보증등 재정한계를 정확히 기술, ⓒ재정상태의 전망, 사업시작때의 예상 대차대조표, 1년후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순익계산서(Income Statement), 첫 1년간의 현금사정(Cash Flow)을 4분기로 구분, 예상한다.

사업계획서 작성시 산업성이 발행한<온타리오주에서의 소기업 시작>(Starting a Small Business in Ontario)이란 책을 참고하면 도움된다. 이 책을 얻거나 투자이민에 관해 문의하려면 전화(416)965－5331을 이용할것.

써비스업· 제조업
유리 업종

온타리오주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있는 투자이민을 위한 산업분야는 수입대치품목제조업, 새로운 기술분야, 수출및 새 고용증대 에 기여할 제조업이다.

◆수입 대치품목 제조업, 새로운 기술분야, 수출및새 고용증대에 기여할 제조업.

◆기존업체를 화장, 고용증대및 실직방지에 기여하는경우.

◆고급식당, 호텔, 모텔, 유흥및 집회용 업체등의서비스업 등이다.

산업성은 이와같은 업종에 투자하고 경영에 적극 가담하려는 이민신청자 들의 이민을 권장하고 있다고 작년6월 밝혔다.

〈 조미래 기자〉

캐나다한일은행 개점
서부지역 교포에 도움

서부지역 교민들에게 금융상 큰 편의를 줄 캐나다한일은행(한일뱅크 캐나다)이 지난 24일 뱅쿠버에서 개업했다.

이날 웨스틴•배이쇼어•인에서 열린 개업리셉션에는 서울서 온 안영모 한일은행장도 참석, 실업계 인사들을 맞았다.

김영호씨가 초대 행장인 한일은행은 다운타운 퍼•벤홀•센터(Four Benhall Centre)에 자리 잡았다.

이로서 캐나다에는 토론토의 외환은행에 이어 두번째의 한국계 은행이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단편 현상모집
당선작 $1천, 가작 $3백
미주의 교포문인 배출 위해

미주의 교포문인 배출위해「한국일보」L A 지사겸미주본사는 제3회 단편소설을 현상모집하고 있다.

미주(미국및 캐나다)전역서 교포들의 창작의욕을 북돋고, 지상을 통한 발표기회를 제공키 위하는한편「교포문인」배출의 길을 열자는 의도에서 마련한 이 문예작품 공모에 많은 응모를 바라고있다.

동사는 현지판 신문 창간10돌 기념으로 79년 제1회 교포문예작품을 공모했고, 81년에는 단편소설 공모, 이번이 세번째 모집이ㄷ.

모집요항은 아래와 같다.

◇종목：단편소설(200자원고지 70매 내외)
◇소재：자유
◇상금：당선작 1편 $1천 가작3편 각 $300
◇모집마감：82년5월15일
◇당선작발 ：82년6월1일
◇보낼곳：한국일보 미주본사겸 L A 지사(141 N. Verment Ave. Los Angeles, CA 90004, U.S.A.) Tel：(213)487－5323

※ 。에「단편소설 응모작」이라고 적을것.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416)533・2361

수난묵상회
부활절 준비위해

오는 11일의 부활주일을 앞두고 토론토한인천주교회(신부 고종옥)는 31일(수)과 4월1일(목) 2일간 던다스성당(941 Dundas St. W.)에서 특별묵상회를 갖는다.

매일밤 7시30분～10시 미사를 겸한 이번 수난묵상회의 강사는 이석현 전교회장이며 테마는 "십자가의 뜻"과 "그리스도의 유언—가상7언"이다.

신자및 일반교민의 방청을 바라고 있다.

MOZART COLLEGE OF MUSIC

음악원생 모집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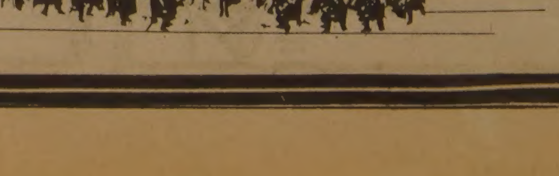
본 음악학원은 최신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음악전문학교 입니다.

교수진：명문음악대학을 수료한 BA, ARCT학위 소지자로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있는 교사들로 구성됨.
교수명：GRACE SCOTT, ORELL FRITZ, LYUBOV SHILLER, SEMY SHILLER, ALICE YU, TATIANA GUTLIN, LAMBERT DANIELLE, KATHY SAUVE, TANYA DEMENTEVA, MICHAEL BRACKEN, HYE S YUN, ROBERT ROBERTS JANET KOH, VESNA SALIB, MILANA MULGREW.
과　목：피아노, 올겐, 바이올린, 기타, 훌룻, 성악, 이론및 화성.
편　성：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개　강：4월5일
접　수：오전9：30～오후9：00까지 수시로 함.
장　소：HILLCREST MALL 9350 YONGE ST.　883－9407
MARKHAM PLACE, DON MILL RD.& STEELES AVE.　881－8211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 구함

본사 확장발전을 위한 뜻있는 자본주를 구합니다.
MOZART MUSIC CENTER LTD.
881－8230
※보다상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윤 호 섭



이민생활과 스트레스(4)

○김보경 박사

김 보 경 박사(심리학)

7. 결론—스트레스 푸는 법

결론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트레스를 푸는 자연적 방법은 울어버리는것, 말해버리는것, 웃어버리는것, 남의위로를 찾는것, 꿈꾸는것, 그리고 한숨쉬어 버리는것 등이라 볼수있다. 어디가서 실컷 울었으면 이 답답한 마음이 없어지려니, 생각하는것과 어디가서 실컷 통사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는 미친사람모양 웃어나 버렸으면 하는것은 모두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연적인 방법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심한 시집살이에서 스트레스를 당한 며느리가 친정을 찾아가서 울고, 하소연하고, 웃고, 친정어머니의 위로를 받는것은 좋은 해결 법이다.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말해버리거나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통을 말해버리는 것도 이 자연적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위에 친한친구, 다정한 부모, 이해적인 교회지도자나 또는 전문적 상담자를 두고 있는것은 그만큼 유리한 점이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 몇가지 점을 강조하여 스트레스를 평소에 방지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면 한다.

첫째, 스트레스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하겠다.

어떤조건이 스트레스의 조건이 되며, 지금 자기가 속한 위치가 얼마나 스트레스에 영향받기 쉬운 여건인가를 알고 있으면 그만큼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그만큼 쉽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자기의 인생관에 대한 보다 건전한 설립이다. 자기의 삶에 대한 목적, 가족으로서의 역할,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인간으로서의 역할, 종교인으로서의 역할등 가치관이 뚜렷하면 자기를 그 만큼 여유있게, 자신있게 이끌어갈 수 있으며, 혼비와 근시적인 물질적 요구, 맹목적 경쟁심등에서올 수 있는 스트레스는 관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세째, 생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괴로움을 받지 않게끔 스트레스에 대한 견인성을 기르는 일이다.

자녀를 기를 때 모든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정작 사회에 나가 좌절을 당하면 그 스트레스는 더 클 수 있다. 예방주사의 원리처럼 가정에서의 조금씩의 좌절감은 나중 더 큰 좌절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어릴 때부터의 훈련이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 동양에서 발전시킨 불교의 좌선, 묵념, 그리고 여러 종류의 정신 도야는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는 방법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불안, 공포감, 증오심, 분격,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계되는 각종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고칠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예방 접종할 수 있는 많은 기술을 개발해 놓고 있다. 그러므로 지나친 스트레스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받기 이전에 스트레스 예방의 세 방법에 대한 습득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이민생활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생활이다. 우리는 더 많이 좌절감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갈등을 갖게 되고, 또 심한 긴박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에 놓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스트레스를 쉽게 이겨갈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면 어려운 생활이지만 기쁨을 잃지 않는 여유있는 생활, 또는 창조적인 생활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끝

가정의 벗 한국일보

봄을 위한 블라우스

지난 겨울내 러플과 리본으로 꽁꽁 감쌌던 스타일에서 벗어나 심플하고 활동적인 블라우스들이 봄을 위해 다시 선보이고 있다. 스타일이 단순한 대신 원단은 흐르는듯 부드러운 질감의 실크. (왼편)버튼이 보이지 않게 앞을 처리하고 소매중간에 버튼을 달아 긴소매에서 짧은 소매로 바꿔 입을수 있다. (오른편) 핸드페인팅한 표범가죽 무늬가 화려한 대신 캡슬리브와 직선으로 컷한 네크라인은 단순해 산뜻한 느낌을 준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 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三國志 345

글·高羽榮·그림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㉕

보좌신부의 첫 시련

고마태오(종욱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그럼 어떻게 했었더라면 좋았단 말인가? 그당시 나는 자유로이 움직일수없는 상처입은 환자의 몸이었는데 어쩌라는거야? 그리고 루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자기의 돈이라고는 한푼없는 수녀의 몸으로, 게다가 캐나다도아닌프랑스땅에서 그녀들 어떻게 또 무엇을 할수가 있었겠는가 말이야."

부리노도 나에게 항의라도하듯 손짓까지 하면서큰소리로 외쳤다.

"자네말을 듣고보니 그럴사정이 있었네마는 자네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루씨를 찾아나섰어야 했을것 아닌가? 자네의 병원생활도 시한부로 끝이 있었을 테니까."

"물론 루씨를 찾아나섰지. 왜 내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독일이 패망한후, 그러니까 1945년7월 나는 완전히 회복되어 본국으로귀국했네. 즉시 휴가를 얻어 루씨를 찾아나섰으나 이미 그녀는 캐나다에 없었다네."

"그럼 그녀가 어디있었단 말인가?"

나는 궁금한 마음속에그의말을 재촉했다.

"남미 선교사로 파견된 후였어."

"남미로?…"

"응, 남미로 떠나버린 후였어. 이토록 교회는 나에게 무자비했었단 말이야. 루씨의 성소를 보호한다는 구실 아래 수녀원 장상과 지도신부란놈은 루씨를 캐나다에 남아있게하지 않았다네."

"그건 우연의 일치였겠지. 설마 수도원 측에서 그렇게 했을라고…"

나는 교회의 입장을 변호하는것은 아니었지만 부리노의 일방적인 생각에다소 제동을 걸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냐, 태오신부는 아직도 순진해. 교회는 당신이 상상할수 없을정도로 악질이야."

"그럼 왜 루씨는 수녀원에서 나오지 못했단 말인가? 그녀는 수녀의 몸일망정 자유로이 수녀원에서나올수도 있었을텐데…"

"그만한 용기가 루씨에게는 없었어.「하느님의뜻」이란 고정관념 때문에 루씨는 그녀의 장상들이 원하는대로 끌려다니는 하나의 로봇드가 이미 되어 있었다네. 내가 곁에만 있었더라면 루씨는 수녀원을뛰쳐나올 정도로 용기를 가질수 있었겠지만…"

"그럼 자네는 루씨를 구출할 것을 단념했단 말인가?"

나는 뭔가 마음이 답답해 또 그의말을 재촉했다.

"아니지, 남미까지 찾아갔었지. 루씨는 자기스스로의 힘으로 구제할 수 없는 몸이었었으니까. 그녀는 내사랑과 내힘을 절대로 필요로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됐나?"

"내가 도착하는날 루씨는 죽어가고 있었다네."

"그래?…"

"……"

나도 부리노도 할말이없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얼마후 부리노는 무겁게 입을열었다.

"태오신부, 이런것을 운명이라고 하나? 아니면 하느님의 섭리라고하나? 내가 도착하는날 루씨는 죽어가고 있었으니 말이야."

"어떻게 된 일인데, 그녀가 죽게되었단 말인가?"

"병으로! 그곳 기후가루씨의 체질에 맞지 않았다는거야. 그리고 고된 전교활동에 지쳤다는거야. 이중삼중으로 허약해진 몸에병까지들어 죽게되었던 거야."

"그때 자네는 루씨를 만나는 봤나?"

"내게 루씨를 볼수 있게끔 해줬더라면 이처럼 내가 교회와 신부놈을 미워하지는 않을걸세. 일주일동안이나 수녀원 문밖에서기다리며 사정했으나 헛일이었어."

"그건 너무했는데…"

나도 분한 생각이들어무심결에 중얼거렸다.

"하여튼 신부놈들은 인정사정도 없는 놈들이니까…수녀의 거룩한 죽음을방해해서는 안된다는거야. 루씨는 예수의 정배답게 청빈과 순명과 순결속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거야. 그뿐이겠는가, 내가 마치귀신인양 수녀원 근처에도못가게 했다네."

"그럼 루씨는 자네가 거기 와있다는 것조차 모르고있었군 그래."

"그것만은 알고있었어."

"어떻게?"

"시장에나온 젊은 수녀에게 통사정을 했지. 역시 젊은수녀라 이해심이 있었어. 그 수녀에게 간단한 편지를써서 루씨에게 전했다네. 그리고 다음날 그 수녀로부터 다음과같은 루씨의 간단한 편지를 받았어.「부리노, 이제 나는 주님곁으로 돌아갑니다. 프랑스 야전병원에서 한때 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읍니다. 잠시였으나마 당신 곁에서 간호해줄수 있었다는 이추억은 죽어가는 이 몸이지만 지금도 귀한 선물로 간직하고 있읍니다. 프랑스에서 갑작스레 본국 본원으로 소환되어오자, 나는즉시 남미로 파견되었읍니다. 그때나는 일생을 수녀로 살아갈것을 재삼 결심하고장상의 명에 따랐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왔읍니다. 지금 나는 시한부의 생명을 갖고있는병자의 몸이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며, 또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읍니다. 수녀원 담너머 당신이 와계시다는 당신의 친필을전해받고 당신을 죽기전에한번만이라도 뵙고싶은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부리노 현싯점에서 우리가 서로만나는것이 최상의 선이 아니라는것을 난 잘 알고 있읍니다. (계속)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취임예배안내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말고 오히려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요. 그러면 목자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월계관을 받게 될것입니다. (벧전 5 : 3-4)

본 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청빙되신 조남유목사님의 취임예배를 드리고저 하오니 오셔서 함께 축하와 격려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 아 래 —

때 : 1982년 4월 4일 오후 2시
곳 : 본 교회(3819 Bloor St. West)
St. Andrew's church
설교 : 홍 순 권 목사님(동부장로교회 시무)
안내전화 : 742-2193(정집사)

1982. 3. 15

— 개별 초청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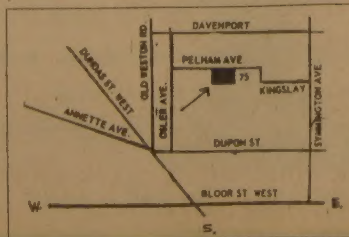
토론토 대한교회 제직일동
KOREAN CHURCH OF TORONTO
3819 Bloor St. W. Islington M8B 1K7

Annette's Donuts Ltd.

=QUALITY·SERVICE, RELIABILITY=

◎도넛츠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온갖 종류의 도넛츠를 취급합니다.

- YEAST FILLED 종류
- YEAST RAISED 종류
- FANCIES 종류
- 각종 CAKE 종류
- 스페샬 JELLY FILLED CAKE 도넛츠 종류
- CRULLERS 종류
- MUFFINS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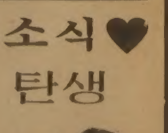
75 PERHAM AVE. 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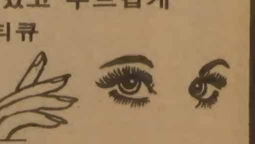
☎ : 656-3444

Annie's Beauty Care Center
(Hair Wizards)

♥여성의 회소식♥
美의센타 탄생

*최신식 장비구입
*여드름 치료
*잔주름 제거
*노화방지
*살결을 탄력있고 부드럽게
*매니큐-패티큐





*불란서 최고급화장품 사용하여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
*털이 많아 고민하시는분.
*바른화장법 지도.

6093 Yonge St. (영×힌치)
Yonge 센타 플라자 내
☎ : 223-7884~5 Mrs. 리

"南北高位회담 즉각 응하라"

孫統一, 對北성명 "對話의門 열려있다"

孫在植통일원장관은 26일 『北韓측은 우리가 제의한 南北韓高位대표자회담에대해 지금까지 긍정적인 반응을보이지않고있다』고 지적하고 『北韓측사정으로 회담이 3월중에 열리지 못하고 지연돼도 우리는 항상 對話의문을 열어 놓고 있을것이며, 北韓측은 이같은 우리입장에호응해 빠른시일안에 南北韓고위대표자회담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孫장관은 이날상오 서울三淸洞 남북대화사무국에서 對北성명을발표, 이같이 촉구하고 『北韓측이 진정으로 평화적 통일을바라고 南北간의 모든문제를 대화를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제의한 南北韓고위대표회담에 동의하고 회담장에나와 그들의 주장을 밝히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北韓측은 빈말로만 南北간의 교류와 협력을 三三항것이 아니라 20개示範실천사업제의를 받아들여 이를 추진함으로써 南北간의관계개선과 민족적화합을 도모해 나가야할것』이라면서 『南北간의 제반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는 반드시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돼야하므로 北韓측은 부당한口實을 앞세워 대화를 기피하는 불성실한 자세를 시정하고 하루속히 대화의 광장에 떳떳이 나서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孫장관은 지난2월25일 성명을통해 北韓측에대해 3월중에 서울이나 平壤 또는 板門店에서 남북한高位대표회담을열어 ▲南北韓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개최문제 ▲北韓측이 지난2월10일에 제의한 회의에관한문제 ▲남북한간의 교류와협력, 사회개방과 긴장완화를위해시급히해결해야할 제반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었다.

京鄕師道賞 수상자 全대통령, 功勞치하

全斗煥 대통령은 26일 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京鄕師道賞을받은 金東植씨(56·水原자혜학교장) 등 9명과 受賞者들의 배우자 7명등 모두16명을 청와대로 초치, 다과를베풀고 공로를 치하격려했다.

이자리에는 李奎浩 문교부장관과 鄭九鎔 京鄕신문사장이 배석했다.

美大學, 北韓學者 초청
美紙보도, 非政治的 文化접촉계획

【워싱턴25日=曺淳煥특파원】 두 미국대학의 교수들이 지금까지 미국을 방문한적이없는 북한학자들의 미국초청을 계획하고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26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에 50~60명의 미국및 캐나다학자들및 교포들을 북한에 초청했는데 이수는 지난10년동안에 북한을 방문한 학자수보다 많은것이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위해 이같은 초청을 추진한것같다고 이신문은 보도했다.

美행정부의 한 관리는 미국의 어느 교수들이 북한학자들을 초청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는 들은바 없으나 순전히 학문과 관련된 북한학자들의 미국방문초청일 경우는 「케이스·바이·케이스」(일반 원칙없이 구체적 경우에 따라)로 검토하여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實現가능에 否定的 外務部 관계자견해

北韓학자의 訪美초청에 관한 外紙보도내용에 대해 외무부관계자는 26일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否定的인 견해를 표명했다.

한반도上空 통과면 비행시간 90分단축
東京-北京航路

【유엔本部25日聯合】東京-北京간 민간항공 비행시간은 한반도상공 통과비행이 가능해지면 90분이단축되며 이로인해 민간항공사들은 연간 1천만달러를 절약하게 될것이라고 아사드·코타이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회장이 25일전했다.

美, 한국등에 4억6천만달러 F5E·탱크生産지원
홀드리지 議會증언

【워싱턴25日UPI=聯合】존·홀드리지 美국무성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는 25일 한국과 태국, 필리핀에 대한 4억6백만달러의 안보지원계획은 이들3개국이 중대하고도 즉각적인 군사위협에 직면해있기때문에 긴요하다고 말했다.

홀드리지 차관보는 하원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관계 소위원회증언에서 83회계연도 예산안에 배정된 동아시아지역에대한 군사판매차관·훈련및 경제지원기금총액 4억8천2백60만달러중 84%가 이들 3국에 배정되어있다고 밝히고 동아시아의 우방및 맹방들이 현존하는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고 그들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할수있도록 지원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정부는 한국에대해 전년도보다 4천1백만달러가 증가된 2억1천만달러의 대외군사판매차관을 할당했는데 이계획에는 F5E機 공동제작, 탱크및 탱크구난차생산, 호크지대공 미사일 개량등이 포함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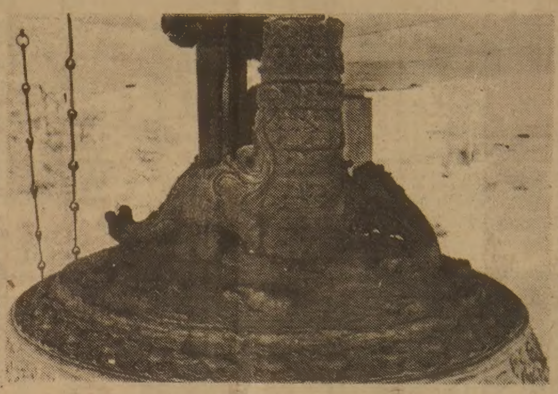
貿易逆調해소 注力 日지역 公館長회의

【東京26日=宋孝彬특파원】 崔慶祿주일대사는 26일 일본지역 공관장회의를열고 對日무역적자의해소와한일경제협력증진에힘쓸것을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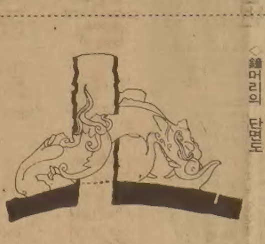
이자리에서 崔대사는 81년도 對日수출이 목표보다 3억달러가미달인 34억달러에 그쳤으며 對日무역적자는 29억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82년도 수출목표 41억달러 달성을위해 힘쓰자고 당부했다.

에밀레鐘머리의 神秘풀었다
圓筒은 신라「萬波息笛」
"천2백년전 우리典型 樣式 萬世에 護國意志 보여준것"

세계적인 名鐘으로 꼽히고 있는 국보 제29호 聖德大王神鐘(일명 에밀레종)등 신라의 종머리에만 붙어 있는 수수께끼의 둥근 통(圓筒)이 신라의 萬波息笛說話에 나오는 신비로운 악기(神笛) 萬波息笛(피리)라는 해석이 나와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비로운 전설을 지니고있는 국보 제29호 聖德大王神鐘(일명 에밀레종)의 종머리(龍鈕) 부분。



◇鐘머리의 단면도

◇鐘머리의 사실도

오랫동안 우리나라 범종을 연구해온 東國大총장 黃壽永 박사는 26일 『신라종의 머리(鐘頂部)에 있는 용과 圓筒은 신라 文武대왕 海中陵의 완공과 때를 같이해 동해에 나타난 護國龍과 이 龍이 神文王에게 전했다는 신라의 국보 萬波息笛으로 보아야한다』고 밝히고 『적병을 물리치고 재해를 다스리는 神通力을 지니고 있는 神器를 鐘맨 정상에 붙여 놓은것은 통일된 나라를 만세에 까지 지켜가자는 護國의의지를 온 국민에게 보여주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에밀레 종머리를 보면 한 마리의 용이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으며 속이빈 마치 피리 모양의 둥근 통을 등에지고 막 바다에서 나와 힘차게 파도를 헤쳐나가는 모습이 장식돼 있다. 지금까지 신라종에만 있는 이 圓筒을 학계에서는 소리와 관계있는 音管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었고 일본에서는 기꽂이(旗揷)로 추정해왔는데 黃박사의 주장은 이를 완전히 뒤엎는것으로 우리나라 종연구의 한 전환점을 그을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라종은 국내에 에밀레종과 上院寺鐘등 3개, 일본에 4개등 모두 7개가 남아있을뿐이다. 이들 종은 한결같이 종머리위(鐘頂上)에 수수께끼의 圓筒을 이고 있는데 이는 같은 불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종에서는 볼수 없는 것이다.

신라종은 頂上의 龍鈕와원통, 鐘腹의 奏樂天人像의 배치가 중국및 일본종과 다르다. 신라종은 龍鈕를 앞뒤에 발이달리고 머리가 하나인龍을 고리로 하고 그뒤에 圓筒을 세워놓았다. 이에비해 중국과 일본종은 雙頭龍鈕로 삼았을뿐 원통이 없다. 이때문에 학자들은 신라종의 원통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黃박사는이원통을萬波息笛으로 보는이유를 삼국유사(卷2)에 나오는 萬波息笛說話와 聖德大王神鐘과의 관계에서 찾고있다. 에밀레종등 신라종의 龍鈕, 즉 單頭龍이 등에 원통을지고 앞뒤발로 힘차게 저어나가는 모습은 「동해에 떠오른 한 작은 산위의 대나무를 文武대왕과 金庾信 두 성인이 동해용으로하여금 神文王에게 전달케 했다는 기록과 일치된다는 것이다. 신라의 신비로운 악기(神笛)였던 萬波息笛은 이대나무로만든것인데 신라종의원통도대나무로만든피리처럼 속이 비고 매디가 있다는 의견이다.

黃박사는 또 신라의 神鐘인 聖德大王종위에 그당시神笛이었던 萬波息笛을 올려놓아 신라의 두 神器를 후세에 전한 것은 있음직한 일이며 더우기 萬波息笛說話의 성립시기와 신라종양식의 창안시기가 일치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학자들은 신라종의 원통을 소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얼마전 일본에서의 한 연구에서는 소리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됐다. 새로운 의견을 내세운 黃박사도 한때는 중국 周代의 古鐘에 보이는 속이 막히고 밋밋한 「甬」과 관련시켜 「甬筒」으로 해석했었다.

社會漫評

러시

다시볼 西獨축구의 眞髓

「뒤셀도르프」팀 招請
4월4일 來韓 한국代表팀과 3차례競技

西獨 프로축구 1부리그(분데스리가)의 명문팀인 포투나·뒤셀도르프가 오는 4월4일 한국을 방문, 7일(서울) 9일(釜山) 11일(光州) 3차례에 걸쳐 한국 대표팀과친선경기를 갖습니다. 한국일보·日刊스포츠·대한축구협회 공동주최로 열리는 뒤셀도르프팀의 訪韓戰은 세계최고의 기술과 전술을 자랑하는 西獨축구의 진수를 실제로 볼수있는 좋은 기회이며, 오는 11월 印度아시안 게임과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향해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한국대표팀에게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줄것입니다.

과거 한국을 방문했던西獨프로축구팀은 팬들에게 깊은인상을 남겼습니다. 69년 한국일보 초청으로 訪韓한보루시아MG팀은 바나나킥의 묘기를 선보여 관중들을 열광 시켰고, 車範根의 프랑크푸르트팀도 정력적인 플레이로 갈채를 받았읍니다.

1908년에 창단된 뒤셀도르프는 현재까지23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한 명문팀이며현재 리베로인 게르트·제베등 3명의 西獨대표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난4년간 西獨축구선수권대회 (도이치 컵) 결승전에 3번 진출 두번 우승을 차지했던 강호입니다.

社告

1908년創團된 名門…분데스리가의 强豪
게르트·제베등 3명의 國家代表선수를 보유

競技日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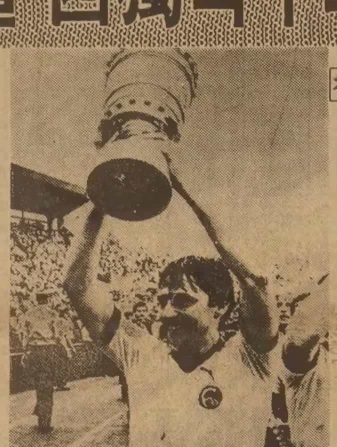
7일 서울 (하오6시 나이터)
9일 釜山 (하오6시 나이터)
11일 光州 (하오3시)

◇입장료

▲서울=특석 1만원 A석 5천원 일반 3천원 군경·중고학생=1천5백원 ▲부산=A석 4천원 일반 3천원 ▲광주=A석 4천원 일반 3천원

◇30일부터 豫賣

▲한국일보 사업부 722—1422 722—1575 ▲세고비아기타 724—6161 ▲중앙악기사 261—7900 ▲교보문고 725—6151 ▲종로서적센터 722—2331 ▲25퀫션 (이대입구) 362—8827 ▲광화문랜드로바 722—8848 ▲영동포랜드로바 62—8180 ▲이태백안경 (충무로입구) 725—2000 ▲아디다스 영동대리점 (한양 쇼핑센터앞) 567—3509 ▲광안안경원 (반포경남쇼핑센터내) 592—2871 ▲제일스포츠(여의도대교B상가내) 782—1144 ▲국제스포츠 (서울운동장앞) 265—8733 ▲충무로미즈노본점 777—2234 ▲미즈노특약점원시림 (무교동) 777—5171 ▲롯데호텔뉴스스탠드 752—1933



◇뒤셀도르프선수단 ▲헤드코치=요그·베르거 ▲부코치=클라우스·브로지우스 ▲GK=호르스트·드레어、울리버·비호 ▲FB=게르트·제베、아르만트·테이반즈、페터·레두러、프·파트·흐、균터·이、제프·클러、만프레드·바、보겐 ▲HB=스키·토·보、칸마스·알조·아침、루·카、더스·로테 ▲FW=우드·아루거、불프강·젤、균터·티엘러、뮈、벤젤、토마스·폰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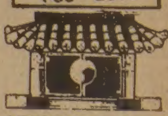
공동주최 한국일보社 日刊스포츠社 후원 대한축구협회

地平線

날씬한 몸매는 모든 여자들의 꿈이다. 그러나 날씬하다못해 깡마르고 보면 아기갖기가 어렵다는 의학보고가 있다. 무대위를 선녀처럼 누비는 발레리나를 손쉽게 예로 꼽을수있다. 미국의 롬·오헐리히라는 생리학자에 의하면 발레리나의 몸에서 지방질이 22%이하로 떨어지면 생리가 중단된다고 한다. 25세의 여자일 경우 26~28%가 정상치라고 한다. ▼처녀일 경우, 지방이 17%이하이면 생리의 시작이 늦어진다고한다. 그래서 오헐리히는 여자가 달리기를 즐기면 아기갖기가 어렵다고경고하고있다. 달리기를 중단해서 살이 오르면 아기를 가질수있다는 충고다. 힘든 일을 하면 피안에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돌아서 여성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그는설명하고 있다. 힘든 일은 남자만이 해야된다는 조물주의 뜻때문인것 같다. ▼달리기란 그만큼 어려운 운동이다. 지난해 뉴욕·마라톤에서 2시간25분29초로 달려 여자부문 세계기록을 세운 뉴질랜드의 미인 앨리슨·로가스타로 각광을 받은것도 당연한 일이다. 1m75cm의 훤칠한 키에 체중58kg인 로는올해 25세의 기혼녀다. 그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마라톤에 초청된 스타다. 그러나 여기엔 또하나의 이름없는 스타가 있다. ▼이름없는 또한사람의 스타란 올해 81세의 李文宰할아버지다. 3시간대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뛰겠다고 李할아버지는 장담하고있다(한국일보 26일자 9면보도). 1년이면 4~5차례 마라톤대회에 나간다는 李할아버지가 1백리길을 뛰겠다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있는 일은 아니다. 비슷한예로 미국에서는 존·켈리라는 74세의 할아버지가있다. ▼존·켈리할아버지라면 미국의 살아있는마라톤史라고할수있다. 그는 작년까지 합쳐서 보스턴·마라톤에 모두 50회나 참가해서뛰었다. 35년과 45년 두차례 보스턴·마라톤에 우승했고 손기정선수가 우승했던 베를린올림픽에서 마지막까지뛴 유일한 미국선수였다. 그는 지금 일본의 青梅마라톤에참가하기위해 일본에 와있다. ▼비슷한예가 지난20일 턱걸이 1백30회를기록한 李珍榮씨. 그는 할아버지라고하기엔 아직 이를듯한 58세다. 모두가 한국적풍토에서는 동떨어진 사람들이다. 농민의 75%가 「논밭을 팔더라도 대학에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상인의 98·6%가 「장사를 물려주지않겠다」고 생각하는 선비지향이요, 권세 지향사회의 독불장군이다. 뜨거운 박수를 다같이 보내야되겠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이대환 不動産

주택, 건물, 프라자, 아파트 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 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7,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10년
③주매상 $8,000 아스킹 $109,000 리스 : 9+5옵숀
④주매상 $6,500 아스킹 $65,000 렌트 $500(Mon) 리스 : 11승년 20마일, 시외

*도나스 샵

주매상 $9,2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 다운페이 $150,000

*햄버거 샵 *드라이 크리닝 *커피 샵등 여러가지 비지네스가 있음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연예인들의
찬양과 간증의 밤

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5 : 17)

한국연예인교회
복음가수 허 림 집사
복음가수 전일용 집사

파란만장한 역경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의 삶과 넘치는 기쁨을 찾은 이들이 영혼으로 부르는 찬송과 생생한 간증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일 시 : 4월16, 17일 저녁 8시
장 소 : 순복음카나다교회교회당

순복음카나다교회
1030 ALBION RD., REXDALE, ONT. M9V 1A7 (한국식품서부지점옆)
전화 : 교회 743—4813, 사택 745—3884 조이식 목사

"美는 對韓지원 遵守"

와인버거 日、防衛費대폭 增額해야

【東京26日=宋孝燮특파원】 訪日중인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26일하오 일본기자클럽에서 연설, 『미국은 자유한국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방위공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주 서울을 방문, 韓·美 연차 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뒤 韓美 합동훈련을 시찰하고 韓美수교1백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할 계획이다』고 밝힌 와인버거장관은 『한국정부가 정치적안정과 경제적성장을 추진하고 北의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한편 北과 대화의 문을 열고있음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소련의 극동군사력증강에 대비하여 자유진영이 결속, 우월한군사력을 가짐으로써 소련이 선제공격을 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일본은 자국의 영토나 주변해역 1천마일의 방위를 위해 대폭적인 방위비지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政黨 國庫보조 增額 신청키로 3黨총장 合意

民正·民韓·국민등 3黨사무총장들은 26일정당運營費지원을위한 國庫보조금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4억원보다 증액하여 신청하기로합의했다.

이날 權正達 民正黨사무총장은 민한당사무총장과 전화를 통해 이문제를 협의한후 『국고보조금 신청시기가 되었다』고 전제, 『4월초에 4억원보다많은 액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2월20일 무역회관에서 열린 3黨3역회의는 3월중에 국고보조금 4억원을 신청키로 합의한바있는데 權총장은 『야당의 운영비 부족을 메우기위해서는 4억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약간 증액할 방침』이라면서 『예산에 책정된 국고보조금은 4억원이지만 예비비를활용할수 있기때문에 증액신청하더라도 문제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新社黨 부총재에 白璨基·金東周씨

新政社會黨은 26일 부총재에 白璨基의원(前 民社黨부당수)과 金東周씨(前 新政黨중앙상위의장)를 각각 임명했다.

新社黨은 또 대변인은 白부총재가 겸임토록하고 부대변인에는 李吉容씨(前 新政黨達城지구당위원장)를 임명했다.

코넬社의 10萬톤 追加도입

"條件좋은 일본쌀 確保위해"

◇국회外米도입규명小委에 출석한 申秉鉉前부총리(현貿易協회장·右)가 의원들질의에 귀를 기울이고있다.

"당시 物量확보 시급해 나혼자 최종 決定했다"

申秉鉉 前부총리 9人小委서 답변

국회經科委의 外米도입진상규명 小委는 26일하오 제5차회의를 열고 申秉鉉前부총리(현貿易協회장)로부터 美코넬社에서 美南部米 10만톤을 추가구입케된 경위를 들었다.

申前부총리는 이날 보고를 통해 『81년1월12일 美下院 존·브로우의원일행이 본인을 방문하여 南部米의가격을 톤당 4백80달러 수준이상으로 구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80년12월30일자로 조달청과 南部米 20만톤을 계약한바있는 존·F·하저社는 財力부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기때문에 타업자로 대체하여 쭉 구매할것을 촉구했다』면서 『만약 不應할경우 日本米의 對韓수출양해를 철회하기위한 下院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표명하기까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1년1월 본인의 訪美기간중 일본쌀의 對韓수출양해를 철회하라는 압력이 실제로 진행되고있음을 美국무성측과 駐美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할수 있었다』면서 『일본쌀의 도입이 지연될 경우 年利2%의 長期低利차관에 의한 금리差益을 포기하는 경제적손실이 있다고판단되어 조건이 유리한 일본쌀을 확보하기위해 南部米10만톤과 加洲米30만톤을 구매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申前부총리는 또 『조달청장이 코넬社에 남부미10만톤을 추가 구매할 경우 퍼미社와의 口頭약속위반으로 문제가 생길수있다는 건의를 받기는했으나 당시 物量확보와 美下院청문회로 일본쌀 도입이 방해돼서는 곤란하다고생각하여 상부와의 협의없이단독으로 최종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통해 『본인은 조달청과 퍼미社간의 계약이 7월말까지 船積토록 규정돼있는 사실을 알지못했으며 조달청이보낸 보고도 9월말까지선적한다고 되어 있었다』면서 『그렇기때문에 10만톤은 新穀인줄 알았으며 따라서 코넬社와 10만톤을 추가계약했던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與野의원들은 申前부총리에게 ▲당초 쌀의 수급계획이 잘못 책정된것이아닌가 ▲物量확보에 급급하여 10만톤을 추가계약했다 하나 81년1월현재 1백60만톤이 확보되어있었는데도 부족했는가 ▲정부對정부의 협정이 미국의원 몇명의 壓力으로 이행이 안될수 있는가 ▲퍼미社와계약 남부미 20만톤중 10만톤은 퍼미社가 未확보상태이고 9월말까지 船積토록 되어있었는데 이10만톤은 8월에 추수한신곡으로 판단했는가등을 물었다.

前농수산長官 4명 出席을 要求하기로 9人小委 民韓側

小委는 29일하오2시 6차회의에 李漢琦감사원장을 출석시켜 外米도입에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民韓黨은 外米도입문제와 관련, 張德鎭·李熺逸·李載卨·鄭宗澤씨등 4명의 前農水산부장관을 국회經科委 外米도입진상규명小委에 출석시켜 식량통계, 糧穀需給계획상의 문제점등에대한 증언을 듣도록 할 방침이다.

"景氣활성화에 노력 문제해결은 對話로"

劉總理, 경제인초청 朝餐

劉彰順국무총리는 26일 상오 중앙청厚生館에서 주요經濟人들을 초청, 朝餐을 베풀고 당면경제문제에 관한의견을 교환했다.

이자리에서 劉총리는『정부는 앞으로 안전기반위에서 景氣의 活性化를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이며 정부와 경제계와의 기탄없는 對話를 통해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배석한 羅雄培재무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納品代를 조속히해결해줌으로써 간접적인 자금지원을 해주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요經濟人들은 물가에 영향을주지않고 수출의촉진을위해 계속적으로 金利를 인하하고 투자촉진을위해 종합소득세를 輕減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인들은 또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정부는 특히 품질향상을위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야하고 수출을저해할 素地가있는 현행법과제도등을 개선하며 補完的인투자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해줄것등을 건의했다.

이날 朝餐을겸한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金埈成부총리, 羅재무, 徐錫俊상공부장관, 趙英吉총리비서실장, 孫守益행정조정실장등이, 경제계에서는 鄭壽昌商議회장, 鄭周永全經聯회장, 申秉鉉貿協회장, 柳琦諄중소企協중앙회장, 李東燦경영자협회회장등 17명이 참석했다.

群小政黨의 離合集散

記者의 눈

群小정당들의 움직임을 보면 한판의 윷놀이를 연상케한다. 꼭 맞는 비유가 될수는없지만 쫓고 서로 제치는 형상이 윷판의 생리와 닮은점이 없지 않다.

新政-民社黨의 合黨으로 5개이던 군소정당(院內議席보유)은 통합당인 新政社會黨과 民權黨, 勤勞農民黨, 自由民族黨의 4개로 줄어들었다.

合黨한 新政社會黨(略稱 新社黨)은 그간 군소5개黨의 맏형格이자 제4黨인 民權黨을 제치고 4黨의 위치로올라섰다. 제5黨과6黨이 슬그머니 합쳐 하루아침에 4黨이 된것이다.

어찌보면 윷판위의 民權이란 돌을 제치고 앞서간 형상이다.

겨우 院內의석 한두석의 군소 정당들이고 보면 모두 힘을 합쳐봐야 별수도 없겠지만, 그들끼리는 잡고 제치는 非情(?)한 게임을 해야하는 절박한 利의 추구가 더 급했던 모양이다.

이제는 군소정당의 先頭였던 民權黨이 쫓는 입장이 되었다. 金義澤民權黨총재는 다른 군소정당과의 合黨및 무소속의원 迎入작업을 하겠다고 벌써부터 밝히고있다. 勢를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신사적인 방법으로 合黨을 모색하되 뜻대로 안되면 곳곳이 갈길을 가겠다』고 밝혀 은연중 民社-新政의 合黨방식을 비난했다.

통합당인 新社黨은 승리의 快哉를 불렀지만 갈길이 순탄치 만은 않다. 어제까지 保守를 외쳤던 新政黨사람들은 좋거나 싫거나간에 새黨안에서 革新의 노래를 불러야한다. 문제는 理念上의 不協合音보다는 장차 조직상의 마찰음이 클지 모른다는데 있다.

新社黨의 앞길엔 金哲씨가 胎動중인 「韓國社會黨」이란 또하나의 變數가있다. 창당준비신고를한 金씨의 韓國社會黨은 서울·三角地 한모퉁이에 거점을 잡고 人城을 노리고 있는것이다.

院內各1석인 勤農黨과 民族黨은 그 전도를 점치긴 어렵지만 他黨과합당을 모색하거나 또다른 변화를 일으켜 멀지않은 시기안에 군소정당의 줄다리기판에서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미운털이던 고운털이든간에 院內의석을 갖고있는 군소정당들은 엄연히 多數派下의 「嫡出」이라는 명분을 갖고있다. 이들 정당들의 散勢는 앞으로 또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不許다.

4黨의 위치로 정당보조금 배분에서 「빈집에 소들어간格」이된 新社黨, 5黨으로 轉落해 「꿩먹던格」이 된 民權黨, 이를 지켜보는 勤農, 民族黨등 군소정당들이 다음 總選때까지 어떤 進路를 밟을지 관심거리다. 【趙聖鎬기자】

◇한국일보사를 방문한 쇼오리끼(正力亨) 日本 讀賣新聞社主(左)와 張康在본사회장.

日 요미우리新聞 正力社主 本社 張康在회장訪問 환담

한국 프로야구 개막식에 참석하기위해 내한한 日本讀賣新聞 쇼오리끼·도오루(正力亨)社主가 26일 하오4시20분 제휴사인 본사로 張康在회장을방문, 韓日양국의 신문제와 프로야구 현황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日本의 名門프로野球團 「요미우리·자이언츠」의 球團主이기도한 쇼리끼(正力)社主는 이날 韓國의 프로野球가 日本못지않게 發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失業保險法 제정해야"

民正 福祉사회심포지엄 이틀째

民正黨은 26일 서울世宗文化회관회의실에서 「福祉社會具現」에 관한 심포지엄을 이틀째 속개, 金秀坤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崔相哲교수(서울大환경대학원)로부터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金위원은 이날 「實情증대와 근로복지」라는 主題발표를 통해 『성장과 분배가 동시적으로 구현되는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는 人力의 낭비를 없애야하며 이를위해 직업안정체계의 近代化가필수적』이라면서 『따라서 직업안정기구를 近代化하여 人力행정의 총본산으로 삼아 취업희망자와 기업간연계를맺어 주는한편 失業保險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群小政黨통합추진 金民權黨총재

金義澤民權黨총재는 26일 『新政社會黨을 제외한 다른 群小정당과의 통합을위해 4월부터 勤勞農民黨, 自由民族黨과 접촉, 적극적인 合黨작업을 추진하겠다고밝혔다.

그는 또 『무소속의원들의 迎入을 위해 黃明秀議政同友會長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李圭正勤農黨총재는 『군소정당과 무소속의원들이 당을 만들어 집단지도체제를 만든다』는 전제가 설경우 合黨교섭에 쾌히 응할것』이라고 밝혔다.

西歐社會黨과 접촉 SI加入협조 要請 高新社黨 총재出國

新政社會黨은 4월부터 西歐社會主義정당들과 활발한 접촉을 통해 友黨관계를 추진하는한편 사회주의인터내셔널(SI)가입에 협조를 요청할방침이다.

高貞勳新社黨 총재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4월중 유럽각국을 순방, 빌리·브란트 西獨社民黨 당수, 크라이스키 오스트리아수상(社民黨당수), 팔메 스웨덴 社民黨당수, 마이클·후트 英國 노동당위원장, 크락시 伊太利 社會黨당수등과만나 新社黨의 SI가입을 위한 협조를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高총재는 26일저녁韓·스웨덴 의원친선협회 소속의원 4명과함께 出國했는데 4월7일까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등 北歐3國을 방문한뒤 이같은 연쇄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民韓 훈련원副院長 閔炳楚의원을 任命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26일 훈련원 부원장에 閔炳楚의원을 임명했다.

西阿洲 시에라리온 外務次官 어제來韓

西아프리카에 위치한 시에라리온의 참즈·에드먼드·와이즈外務次官이 金東暉외무차관의 초청으로 26일 하오 來韓했다.

와이즈次官은 오는 4월2일까지 滯韓하는 동안 劉彰順국무총리, 盧信永 외무장관을 차례로 예방, 양국간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며 現代造船, 浦項製鐵과 새마을모범부락, 板門店등지를 시찰할 예정이다.

關稅率 40%로확대 延支給 수입품대상

재무부는 오는 4월1일부터 DA, 유전스등 1백80일이내의 연지급수입 대상품목을 현행 실행관세율 20%이내품목에서 실행관세율 40%이내품목으로 확대 조정키로했다.

재무부는 지난 2월1일연지급 수입대상품목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변경 실시한후 2개월만에 대상품목을 추가 확대한것으로 일부 사치품등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이 그대상이 된다.

社說

「野球80년」의 快事

—個性創造로 프로時代 前進시켜야

스포츠의 봄이 열렸다.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그라운드는 벌써 관중의 열기로 뜨겁다. 새 봄을 맞아 새로운 한국프로야구 시대가 개막된다.

주말인 오늘 하오 서울운동장 다이아몬드엔 壯觀과 흥분이 펼쳐질 것이다. 연초에 창단된 6개 프로야구단이 그동안 스프링 캠프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낸다. 개막전의 始動이 걸리면서 우리는 한국야구 80년에, 새로운 章을 열게 된다.

앞으로 6개 구단은 연고지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도시를 돌며 2백40게임의 열전을 벌인다. 우리도 즐거운 대중 스포츠를 갖게 되었다는 긍지가 넘친다.

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을 프로야구가 「건전여가」에 크게 기여 하리라는 기대가 앞선다. 힘과 기량, 즉 실력만이 통하는 통쾌한 대결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자극을 줄것이라는 희망도 갖게 한다.

상거래에서 고객이 王인것처럼 프로 스포츠에서도 관중은 王이다. 첫걸음을 내딛는 프로야구가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빠른성장을 기약할수 있을지는 오로지 관중확보에 달렸다. 프로는 흥행이며 경기장은 곧 市場이다. 상품가치가 적으면 손님은 고개를 돌린다. 단골손님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프로구단의 판도가 달라질것이다.

관중동원의 열쇠는 팬들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다. 프로라면 아마와 다른 프로다운 경기를 보여줘야 한다. 관중이 요구하는것은 호쾌한 야구의 멋과 치밀한 전략의 대결이다. 폭발적인 홈런과 아기자기한 기술및 두뇌싸움을 관중은 바란다.

좀 거친 비교같지만 미국프로야구는 힘의 대결이며 일본은 細技의 야구를 하고있다. 이들 선진야구를 빨리 익혀 한국프로야구의 「개성」을 굳혀가야 하겠다. 관중에 대한 보답은 선수들의 투철한 직업의식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프로의 세계는 냉혹하기 그지 없다. 그것은 무서운 생존경쟁의 광장이다. 그라운드의 함성을 자아낼수 있는 경기력만이 스타를 탄생시키고 영웅을 만들어 낸다. 장차 프로야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개성있는 스타가 힘차게 솟아 나와야 하겠다.

구단과 선수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선 지금의 5년공동채산제나 선수스카우트 지역제한은 그 기간을 빨리 단축시켜 가는것이 옳다고 본다. 이 제한은 타성과 안일에 사로잡힌 유혹에 빠지기 쉽기때문이다.

우리 프로야구를 예상보다 빨리 출범시킬수 있었던것은 폭 넓은 국민의 야구열이었다. 이 열기는 아마야구, 특히 고교야구붐에서 싹이 텄다. 향토애와 연결되어 야구붐을 전국에 확산시킨 공헌은 높이 평가 받아야 옳을줄 안다.

프로야구의 水源이라는 뜻에서도 아마야구나 학원야구는 더 적극적으로 육성되어야겠다. 올가을엔 서울에서 세계 아마야구의 정상을 가릴 세계야구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우리 아마야구는 이미 세계정상급임을 몇차례 실증했다. 서울대회에서도 정상의 자리를 다시 확인해 주도록 밑받침을 단단히 해줘야 할것이다.

우리 스포츠는 지금 도약의 뜀틀에 올라섰다. 86년과 88년의 慶事로 스포츠한국의 면모를 세계에 떨치고 있다. 여기에 프로야구가 가세하여 우리의 자랑을 보태주었다. 그만큼 기대도 부풀어 오른다. 국민의 꿈을 키워 줄 이봄의 活氣를 프로야구에서 찾게 되기를 기원한다.

全員취업과 需給조화

—勞動市場개설에 부푼 社會의期待

韓國經營者總協會는 오는 6월부터 全國 주요도시에 상설노동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한다 (26일자 한국일보 4면보도).

노동부의 인가를 맡아 설립을 추진중에 있는 이 노동시장은 경영자총협회(서울)와 부산, 대구, 대전, 광주및 인천등지의 동협회 지방지부에 개설하며 별도로 업종별·지역별 30여 경제단체에도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노동시장의 구상은 산업사회가 필요로하는 人力을 원활하게 공급토록하여 고용을 늘리면서 人力의 배분과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려는데 있다.

현재 전국에는 53개소의 國公立 직업안정소와 私立 직업소개소 2백88개가 있다. 그런데 이들 직업소개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취업자들의 대부분은 대체로 현재의 生活형편이 어려운 靑少年들인것으로 짐작되며 어른인 경우도 역시 부유한 편은 아니다.

따라서 경영收支타산을 도외시할 수 없는 私立직업소개기관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이들 私立기관의 存在이유와 그 功過를 인정하면서도 求職者의 처지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터에 소개료까지 내며 취직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실정을 빚게하였다.

이는 인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임에 틀림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주장하여온대로 직업소개기관은 무료로 취업을 알선해 주는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추측컨대 이번에 경영자총협회가 설립을 추진하는 노동시장은 國公立의 경우와 한가지로 무료봉사하는 소개소일것이므로 우리는 이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하며 좋은 成果를 올릴것으로 보고 기대하는바 크다.

이 단체들은 求人者인 기업체가 그 구성원이므로 어떤 면에서는 國公立소개소보다 더 신속히 더욱 효율적으로 求人·求職兩側의 궁합을 맞춰줄 수 있을 법하다. 求人·求職창구를 열어놓는 외에 직업상담과 취업지도업무도 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바라건대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발전하는 산업사회의 모습을 예견하고 이에 맞춘 유망직종의 개발과 이를 노동 거래업무의 지침으로 삼았으면 한다.

어느 선진국이 개발한 80년대의 유망직종으로서 그 求人수가 크게 늘어날것을 예견한것은 전자요원·수리요원·금전출납요원·조립용접요원·비서와 속기사·건물수위·구매와 판매요원·간호요원등이며 반대로 70년대에 비하여 고용이 줄어들 직종은 식자·우편·구두수선·家事같은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성장·발전계획에 알맞는 직종별 노동수급전망을 세우고 이에 부응하는 人力개발과 취업의 알선지도를 전개하는 일은 발전과정을 人力面에서 순조롭게 보장하는 지름길이다. 이런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정부는 물론이고 모든 민간단체와 직업소개기관들이 이에 관한 앞날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의 발전은 거시적으로는 경제가 발전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데서 그 원천을 찾아야한다. 이점에서 고용파급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것인데 아직 우리나라의 이 부문의 취업자는 인구 1천명에 80명꼴이므로 이를 선진국의 1백50명과 비교하면 그절반밖에 안될 정도, 발전수준이 매우 낮다할것이다. 이를 뒤집어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는 발전의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는 셈이어서 큰 진전을 기대케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을 새로 지닌 경영자총협회의 公益性을 유지하면서 괄목할만한 발전과 成果를 올릴것을 여기 격려해두고자한다.

政局往來

◆李鍾玉, 프렘수상에게 失禮범해

26일상오 「南北韓고위대표회담」제의의 受諾촉구성명을 발표한 孫在植통일원장관은 성명가운데 사용된 「빈말」에 대해 『北韓측이 진정으로 對話재개의향이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僞裝하는 것도 빈말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고 南北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북한측 자신이 이를 절실하게 원하고있는 것처럼 內外에 선전하는 것도 「빈말」이라고 부연설명.

그는 또 北傀 정무원총리 李鍾玉은 지난번 泰國의 프렘수상을 방문, 자기들의 주장을 強辯하다 프렘수상으로부터 한국측의 제의가 옳은것 같으니 받아들이는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 나가는 외교상의 失禮를 저지른 예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孫장관은 金山美문화원放火사건에 대해 『北傀가 방송을 통해 이사건을 두고 「애국적인행동」云云하며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방화사건의 범인집단과 北韓공산집단이 뜻을 통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국提議가 옳으니 받아들여야" 北傀、泰서 망신

◆궁금한대목 속시원한답변없어

26일열린 국회 外米도입 진상규명 9人小委는 申秉鉉 前부총리를 출석시킨가운데 「궁금한 대목」에 대한 집중 질의를 벌였으나 속시원한 답변을 얻어내지는 못한듯.

이날 小委의원들은 1시간20여분동안 진행된 非공개회의에서 코넬社측에 10만톤의 美南部米를 추가도입토록 지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했으나 申전부총리는 『당시의 상황으로는 불가피했다』 『경제책임장관으로서 지시를했다』고만 되풀이했다는것.

野의원들은 申전부총리의 답변이 끝난뒤 與野간사의 「公開여부」를 놓고 한시간가까이 실랑이를 벌였다.

공개를 주장한 야당측과 이에 반대하는 與黨측이 맞서 高聲이 밖으로 들릴정도로 험악한 분위기였는데 『다음 회의가 공개되지않는다면 야당의원들은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野黨간사인 李炯培의원(民韓)이 발표하자, 申相式小委위원장은 『小委의 성격상 그렇게할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힘들어서 小委위원장 못해 먹겠다』고 푸념하기도.

◆벙어리冷가슴앓이 深化될듯

民韓黨은 조직책이없는 6개事故지구당과 일부 不實院外지구당에 대한 정비를 83년초 전당대회직전까지 늦추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지역구가없는 전국구 출신의원들의 「벙어리 냉가슴앓이」는 重症化될 전망.

이같은人選연기는 『공연히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없다』는 판단때문인데 지역구희망자는 전국구의원 24명을 포함해 院內만도 25명.

이들중 院外지구와 緣故를맺고있는 의원은 姜善性(濟州) 梁在港(晋州) 孫泰坤(密陽) 金進基(釜山鎭) 崔守桓 徐鍾烈(浦項) 金翁植(安東) 孫廷赫(密陽) 趙佳衡(論山) 李洪培의원(麗水)등 10명이고, 院內지구와 겹치는곳이 李重熙(江西) 李廷彬(羅州) 金德圭의원(茂朱)등 3명.

이밖에 劉沃祐 李泰九 金文錫 黃山城 鄭圭憲 申宰休 延濟源 李義永 康源采 李閔基 尹起大 金炯來의원등 12명이 「이런 저런 사정」으로 서울의 江南과 城北을 희망하고 있다.

◆保革合黨, 그런奇型이어디있는가

新政社會黨은 26일 黨名을 略稱 「新社黨」으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新社會黨(New Socialist Party)으로 하기로 했다.

이날 부총재겸 대변인에 임명된 白璨基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9、10월에 전국지구당개편작업에 들어가 이념정당의 뿌리를 내리겠다』고 첫 성명을 냈는데 合黨懸板式을 4월1일에 갖고 黨職임명은 高貞勳총재가 北歐순방길에 오른뒤 4월말에 귀국한뒤 발표할예정.

한편 金義澤民權黨총재는 26일 新政-民社黨의 合黨에 대해 『保守·革新의 결합이란 그런 奇型이 어디있는가』라며 『民社黨은 나름대로 속셈이 있다치고 金甲洙新政黨총재는 후배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만들 일이지 그게 무슨 행위냐』고 맹렬히 성토.

그는 또『제5黨으로밀렸다고하나 우리는 지구당수 81개로 조직의勢에 있어선 民正、民韓다음가는 「제3黨」의 형세이니 당원들만 뭉치면 안타까울게 없다』며 自慰하기도.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녀들의 출전 환영!

캐나다 전역의 교포미녀들의 다수 출전을 바랍니다.

입상미녀들은 토론토에서 실시되는복합문화 축제 캐라반 행사에 참가하며.

최고미녀 「진」은 모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선」은 캐라반 미녀선발대회에 출전할 영광이 주어집니다.

때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시청뒤)

●응모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계 여성
●연　　령 : 만17세부터 만25세까지
●신청서류 : (1)신청서 1매 (2)사진 2매(명함판)
●제 출 처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신청마감 : 1982년 4월10일 하오 5시
●의　　상 : 수영복·이브닝드레스·한 복
●문 의 처 : 한국일보사 (416) 533－2361～4
●기　　타 : (1)미스코리아 "진"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전국결선대회에 출전하여야 함. (2)입상자 전원은 82년도 캐라반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입 장 료 : $30.00(디너·쇼, 댄스포함)

1982년도 MISS KOREA OF CANADA

참가신청서

1. 성　　명 :
2. 주　　소 :
3. 전　　화 :
4. 생년월일 :
5. 특　　기 :
6. 학　　력(최종학교명) :
7. 직　　업 :
8. 신　　장 : 인치
체　　중 : LBS.
바 스 트 : 인치
웨이스트 : 인치
히　　프 : 인치

주 최 : 토론토 지구 한인회

후 원 : 한국일보사

제6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80년도를 수놓은 정상미녀들
=왼쪽부터 안주영(매너)·김진명(미)·허윤정(진)·손주라(선)·고보경(인기)양=

「金日成王朝」秘史 〈2〉

主體사상의 正體

「主體사상」을 反종교·反蘇의 무기로

前北傀共産黨간부 林隱 「잔혹성」폭로

"숙청기술이 領導예술이다"허풍

철저한排他主義…레닌등도 비판

主體란는 말을 평양에서 처음으로 쓴것은 金昌滿이었다。 그는 소련에서 돌아온 간부들을 중상、비방할 목적으로 이 말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쓰고있는 주체라는 용어는 2차대전후 일본의 문단에서 논의된 「주체성론제」와는 공통성이 없으며 물론 한국에서 쓰고있는 주체라는 말과도 관계가 없다。

文世永辭典에 따르면 주체란 主된 사물이라고 설명되어 있다。(1940년판、1백45페이지)、그리고 기묘하게도 주체라는 위의 단어와는 전혀 관계없이 다른 의미로 쓰는 同音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主體(名詞)—정리해서 처치하는 것』 (文世永사전 1백45페이지)이다。 우연한 일이지만 金日成이 사용하고있는 主體라는 말은 후자의 단어와도 관련이 없지는 않다。

「주체」란는 말이 각광을 받게 된것은 1955년12월20일 金日成이 행한 「사상사업에서 敎條主義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는 일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보고이후이다。 이 보고의 주된 목적은 소련파 간부인 朴昌玉、奇石福、朴永彬등을 비방하는데 있었다。 그 기본적인 내용과 목적은 反蘇내지는 배타주의적 정신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그 제1보부터 反「宗派」、反蘇투쟁의 무기로 사용되었다。 이 무기에 대해 소련과 중공에서 돌아온 많은 「조선공산주의자」가 宗派라는 죄명으로 「피바다」의 제물이 되었다。 文世永辭典에 있는 「主體」의 의미처럼 金日成은 방해가되는 인물들을 「정리해서 처치」해버린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것처럼 1960년4월 레닌의 탄생 90주년을 맞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기관지 「紅旗」는 「레닌주의 만세」라는 편집부 논설을 발표했다。

이 논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회」 기관지 로동신문에도 즉시 번역、게재되었다。 소련공산당은 이 논설을 자국의 現정치노선에대한 비방으로 간주、그 이후 中蘇관계가 긴장되었다。 이어 6월에는 北京에서 열린 세계노동조합연맹평의회에서 중국공산당을 대표해서 陸定一이 발언했는데 이발언이 기폭제가 되어 中蘇논쟁이 공공연하게 전개되었고、양국관계는 더욱 날카로와졌다。

이 기회를 이용한것이 金日成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제3세계에 발을 걸치고 이미중공이 영향력을 심었는가、또는 그 예정지인 곳에 「주체사상」이라는 만병통치약을 들고 잠입해 들어갔다。 중공지도자들은 金日成의 활동에 크게 만족했다。 金日成주의자가 제3세계에 퍼뜨리기 시작한 주체사상은 편협한 배타주의사상이었으며 이에따른 反蘇사상이 그 뼈대를 이루고있었다。

중공지도자들은 金日成과 그의 주체사상에서 그들과 그 사상의 등조자 내지 계승자를 발견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金日成의 「自力更生」의 장려、「지배주의비판」「反蘇·자주 노선의 견지」등 정책은 실로 毛澤東주의의 완전한 복사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日成 자신은 중공의 생각보다는 훨씬 깊은 야심과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에게는 사회주의 국가들 속에서 낙제생으로 남아있기 보다는 신흥국 가운데서 우등생이 되는 편이 더욱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엄격한 시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소련의 눈에서 떨어지는 길이며、宗家집과같은 존재인 중공의 간섭을 피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이렇게해서 金日成은 주체사상의 모호함을 최대한으로 이용、자주·자립·자위란는 상품을 제3세계 시장에 팔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주의라는 포장지로 싼 이 배타주의 상품은 잘 팔렸다。 金日成의 허영심은 날이 갈수록 부어났다。 그는 자기도 스탈린이나 毛澤東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한 국제적 首領이 된것 같았다。 그는 또 개인숭배의 경험이나 교훈을 배우려하는 자들에게는 숙청의기술이 領導藝術의 진수라고 설교하기도 했다。 주체사상은 金日成이 수출할수있는 유일한 상품이었으나 그런 막연한 용어와 개념에서 출발、4반세기를 걸어왔다。 이런 과정속에서 주체사상도 전에 金日成주의 창시자가운데 한사람이었던 金昌滿이 제창한 당초의 주체개념으로부터 크게변화했다。

이 주체사상의 창작활동에서 黃長燁의 모든 정력을 기울인 노력을 빼놓을 수는 없다。 黃은 北傀도자가운데 소련에서 돌아온 단 한사람의 철학자이다。 주체사상은 그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것을 金日成이 손질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춘것이다。

현재 黃長燁을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의장이라는 실권없는 閑職에 있으나 이것은 그에게있어서 명예직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본업은 어디까지나 주체사상의 창작활동이다。 黃長燁의 主體사상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자。

수령에게있어 朝鮮人民과 세계의 진보적 인민앞에 쌓아올린 업적가운데 가장 높이 빛나는 지위를 차지하는것은 주체사상을 창시한데 있다(노동자 1979년 제4호、20페이지)。

주체사상의 창작자가운데 한사람인 黃長燁을 포함、金日成主義사상가들은 하나의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에 관계없이 주체이론이 과학적체설로 성립될수도 없고、하나의 세계관으로서도 존재할수 없는 역사적 운명을 갖고 있는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들의시대는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상호대립하는 2개체제간의 모순시대이며 두개의 세계관、두개의 철학이 기본적인 조류를 이루고있다。

「사회주의국가 인민」과 세계의 「노동자계급」은 자기의 세계관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을 갖고 있으며 자본주의세계와 「자산계급」은 反共사상을 기본으로하는 자기의 「부르좌이론체계」를 갖고있다。 그러면 주체사상은 어느 계급、어느 사회제도에 봉사하는 학설과 세계관이 될수 있는 것인가。

주체사상은 그것이 反共사상으로 성립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代役을 할수도 없는 것이다。

주체사상가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역할로는 자기목적을 달성할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것이기때문에 결국 그들의 앞에는 하나의 길밖에없다。즉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상하면서 그 기본사상과 정신을 거세하는길이다。

소위 노동자계급과 전인류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한다는목적을 가진 마르크스·레닌주의 학설은 개인숭배와 개인독재체제를 옹호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하는 주체사상과는 공존할수가 없다。

金日成은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 인간이 가져야할 과학적 혁명적 세계관』이라고 떠벌이고 있으나 실제로 주체사상에는 그것이 의지하고 봉사할 계층이 없다。

현재 金日成주의자들의 저서나 논문에서는 마르크스·엥겔스·레닌의 이론이 그대로 인용되는 예가 없다。 즉 비판의 대상이 될때만 金日成주의자의 저서에 마르크스·엥겔스·레닌의 이론이 인용되는것이다。

國務次官補 임명에 따돌림당한 헤이그

"어느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다" 不滿토로

헤이그長官 발끈

○…백악관과의 심한 대립으로 자주 입에 오르내리던 헤이그 美국무장관이 또 한차례 對백악관 입씨름에서 패배했다。

최근 한 백악관회의에서 레이건 대통령의 보좌관 그레고리·네웰이 국무성국제기구분제 담당차관보에 임명되자 국무성관리인 엘빈·드리쉘러를밀었던 헤이그가 발끈한것。

이자리서 헤이그가 『이제까지 다른 어느 대통령도 국무차관보 지명문제에 직접 개입한적이 없었다』고 불평하자 마이클·디버 백악관수석보좌관은 『다른 어느 대통령들과 다른사람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라며 즉각 반박。

이로써 헤이그는 백악관내 유일한 자신의 지지자라고 믿었던 디버와의관계도 서먹해 졌다。

◇도브리닌 駐美蘇大使(左)

도브리닌、20年근속

20년간 대통령 6명째상대

○…72년5월 당시 닉슨 대통령은 역사적인 소련방문을 앞두고 하이퐁항봉쇄와 하노이폭격을 단행했다。 미국무성관리들은 닉슨 대통령의 訪蘇가 영향을 받지않을까 우려했다。 이때 백악관상황실에 모습을 나타낸 아나톨리·F·도브리닌 駐美소련대사(68)는 소련의 반응에 신경을 곤두세운 키신저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에게 짓궂은 농을 걸었다。 소련이 어떻게 나올것같으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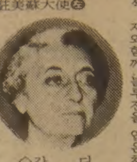
키신저는 정상회담이 연기될 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브리닌은 키신저에게 『그렇지 않다』고 슬쩍 일러줬다。

이달로 도브리닌은 소련대사로 워싱턴땅을 밟은지 꼭20년。 그동안 백악관의 주인이 5번이나 바뀌면서 정계고위층과 두터운 인간관계를 맺었고 이제6번째로 레이건행정부의 측근들을 상대로 전례없이 불편한 美蘇관계의 매듭을 풀어가고있다。

키신저는 그를 『철저한 프로외교관』이라고 칭했고 카터 대통령담당시 안보담당보좌관을 지낸 브레진스키는 『재임4년간 가장 멋진 나의 외교고문、기막힌 협상가』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키신저는 도브리닌을『아나롤」、도브리닌은 키신저를 『헨리』라는 약칭으로 터울없이 부르며 술내기 체스를 즐겼고 브레진스키와는 4시간씩 2번이나 엎치락 뒤치락 체스를 두기도 했다。 존슨 대통령가정으로 한밤중에 찾아가는가하면 포드 대통령과는 핫도그를 함께 먹었고 손자와함께 블루진을 입은채 헴버거를 사면는 모습에 미국인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도브리닌은 쿠바위기이후 줄곧 워싱턴정가를 누벼온 東西관계의 산 증인인셈이다。


◇간 디

◇헤 이 그

◇시아누크

外信로비

시아누크、입다물기로 작정

시아누크、새決心

○…기자들에겐 아주많은 얘기거리를 제공하는바탐에 외교관들에게는 지극히 달갑지 않은 인물인 노로돔·시아누크前캄보디아주석이 좀 예외적인 결심을 해서 화제。

그 결심이란 앞으로 기자들과 말을않겠다는것。

최근 한 기자가 그의개인비서를 통해 北京에 머무르고 있는 시아누크와의 인터뷰를요청하자인터뷰는 사절하고대신질문서에書面으로만 응하겠다는 대답。

마라톤기자회견과 인터뷰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시아누크의 이런 결심은 아물든 갖은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업저버들은 그의 갑작스런 기자회견회피이유에대해 시아누크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캄보디아亂政의 파트너들、특히중공의 지원을받는 크메르·루지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가는 공연히 중공과의 사이가 불편해질것 같기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세기의 두女傑 런던서 對坐

간디印首相 訪英

○…인디라·간디인도수상이 영국에서 열리는「인도문화축제」개막식에 참석하기위해 21일、6일예정으로 직접 영국을 방문했다。

대처영국수상은 이날 런던공항에서 간디수상을 영접했는데 세계는 작년4월 대처수상의 인도방문이래 약1년만에 또다시 이뤄진 두「세기의 여걸」간의 대좌에 이목을집중。

간디수상은 양국간의 과거가 즐거운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지나간 역사이며 이제 새로운 관계유지를 바란다고 방문소감을피력했다。 2세기에걸친 영국의 인도지배를 상기시킨 간디의말에도 鐵의 여재상 대처는 표정하나 흐트러지지않았다。

8개월간 계속되는 이문화전에는 미술、과학、의상、영화등 30여종의 인도작품이 전시되는데 22일의 개막식에는 찰즈황태자가 참석했다。

體重줄인 아민、豪言은 여전

아민、사우디隱身

○…3년전 국외로 쫓겨난 우간다의 종신대통령이디·아민은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지다에은신중이다。

최근 헤일라·우마라는터키기자와 행한 인터뷰내용을 보면 아직도 그의 기상천외한 행동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듯。

아민은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받자 『나는 그를 더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며 우간다의 동료들이 자신의 복귀를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른다고 능청。

또 먹는량을 줄여 1주일만에 체중을 10kg이나줄였다며 『몇파운드만 더 빼면 지구상에서 내게 수영시합을이길사람은없을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했다。

中共、對蘇협력모색

對美관계 冷却관련

【東京25日=聯】소련과 대립관계를 지속해온 중공이 최근 경제·무역·기술분야에 걸쳐 소련과의 협력관계를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결정한것으로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6일중공소식통을 인용、북경발로보도했다。

중공의 이같은 결정은 대만에 대한 무기제공을 둘러싼 미·중공관계의 내각과對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등에 관의한 對중공수출규제등과 관련한 중공의 새로운 선택이라고 이신문은 전했다。

중공외무성은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이 24일中蘇국경협상의 속개및 中蘇국가관계개선을 제안한데대해 『원문을 아직 보지 않았기때문에 태도표명을 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경분리적인 중공의 새로운對蘇정책이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제안에 대한 중공측의 회답에는 반영될 것이라고 이신문은 보도했다。

美、쿠바에密使파견

【워싱턴25日UPI=聯】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은 이달초 쿠바정부에 엘살바도르 게릴라지원을 중단하도록 설득시키기위해 아바나에 밀사를 파견했었다고 美CBS방송이 26일 보도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美국무성은 아바나에 밀사를 파견했다는 보도에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않았다。

◇컬럼비아號의 두 宇宙人 지구궤도를 비행중인 컬럼비아號 선장 잭·루즈머(앞)가 실험에 열중하고있는 가운데 조종사 고든·풀러튼이 손을 흔들어 보이고있다。

방글라데시 檢擧선풍

戒嚴당국 前閣僚등 5백여명 체포

【대카26日UPI=聯】군부쿠데타로 실각한 압두스·사타르 방글라데시 대통령과 그의각료들은 계엄당국이 설치한특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될가능성이 있으며 유죄일 경우 사형에 처해질수도 있을것이라고계엄당국이25일전했다。

이나라 정권을 장악한 호사인·모하메드·에르샤드계엄사령관은 이날 TV연설을 통해 계엄당국이 대대적인 부정부패일소캠페인을 전개할것이라고 선언하고 부패혐의가 발견되는 자는 사형·종신형 또는 장기형등 중형에 처해지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계엄당국이 이미 소푸르·라만前재상、아토던·칸前인력개발상및 초우두리·탄비르·아메드·시디케前상업상등 4명의 각료와 야당지도자인 하시나·와제드、아와미연맹의장등 5백여명의 정계인사들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봄베이美領事館 피습

印度人50여명 화염병던져…建物파손

【뉴델리25日UPI·AP=聯】약50명의 印度人들은 25일 화염병등으로 봄베이 주재美영사관을 공격、현사관건물을불손상하고 8대의 자동차를불태웠다고 뉴델리 주재 美대사관의한대변인이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들의 공격때문에 美영사관측이 印度경찰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밝히고 印度경찰의 발포로 1명이 사망하고 여러명의 부상자가 생겼으며 20여명이 체포됐다고말했다。

美대사관은 공격자들이 자신들의 신원을 아자드·힌드·신하(獨立印度단)라는 단체의 단원들이라 밝혔다고말했으나 印度관영 PTI통신은 그들이 봄베이에 있는 피라티·시브·세나라는 이름의 한 반대단체소속이라고 전했다。

이란·이라크戰 날로 激化

【베이루트·테헤란25日UPI=聯】이라크는 25일 이라크군이 이란의 유전지대인 후제스탄省에서 이란군과 지난 닷새동안에 걸쳐 치열한 접전을 벌여 적1만6천명을사살하고 탱크 1백40대、전투기및 헬리콥터 각각 2대、병력수송용장갑차 79대、소총22정을 파괴했으며 탱크 56대와 소총16정을 노획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란은 이날 이란군이 최근 서남부전선에서 이라크군과 전투를벌인끝에 이라크국경으로부터 14㎞떨어진 레가비에 고원상의 주요 전략요충 한개를탈환하고 개전초기 적수중에 넘어간 부근의 넓은 영토를『해방』시켰다고 밝혔다。

外信안테나

◆엘叛軍 首都까지 攻擊‖60인제헌의회선거를 불과 사흘앞둔 25일 엘살바도르의좌익게릴라들은 수도 산살바도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을 수백m까지 진격、6시간동안 정부군과 치열한전투를 벌이는한편 산살바도르 동방1백12㎞지점에 위치한 모라잔성의 소촌락인 요로아퀸을 점령했다。【산살바도르=AP】

◇겨울用 기성복 파리의 디자이너 랑뱅양이 콩코르드광장에 서있는 겨울용 기성복 컬렉션 시사회에서 저지로만든 빨간색의 짧은 드레스를 선보이고있다。【파리25日UPI=聯合】

海外토픽

"上司와 對話때는 심호흡을"

상사와의 대화는 사람의 혈압을 급격히 높이며 상승된 혈압은 심호흡으로 50%까지 낮출수 있다。

최근의 한 연구발표에 의하면 일상적인 대화라하더라도 말하는 행위는 급작스런 혈압상승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특히 상사와의 대화시에는 도중에 심호흡을 하고 조금 천천히 말을 하면 혈압을 10~50%까지 저하시킬수 있다고 한다。

미국 메릴랜드의대 정신과의 제임즈·린치박사는 이발표에서 고혈압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말을 할때 쉬었다가 하는것을 모른다고 지적하고 그들에게 천천히 말하는 법과 적절히 숨쉬는 법을 가르치면 수개월내 혈압을 조절할수 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

린치박사는 또 지위에따라 혈압이 다른것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자기가 열등하다고믿거나 고용·피고용관계에 있다고느낄때 하급의 위치에있는 사람의 혈압은 오르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흡이 적절하지못하면 血中 산소량이 떨어져 혈압이 상승하는것이라고 말했다。

【필라델피아=UPI】

「世界저널」 곧창간

국내 최초의 國際經濟專門誌 「世界저널」 (사진) 이 聯合通信에 의해 4월1일자로 창간되었다。「世界저널」은 세계경제의 움직임과 국제정세의 흐름을 「韓國的 視角에서 심층분석」하고 「産業·經濟·技術·최신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것을 발간취지로 삼고있다。

메아리

病院苦

일본 의료계에 「3時·3分」이라는 유행어가 나돈 일이 있다。 이 유행어의 암호풀이는 간단하다。 고작 3분간의 진료를 받으려고 3시간이나 병원에서 기다려야 한다는것이다。

이 딱한 현상을 「가마가제(神風)診療」니 「亂診亂療」라 비꼬기도 했다。 의료위기론이 심각해지자 몇년전 NHK방송은 의료선진국에 「세계의 의료」취재팀을 보냈다。 미국에서 이들은 로스앤젤레스 한 개업의를 샘플로 보여주었다。

미국의 개업의들은 진료예약제로 환자를 맞이한다。 이개업의는 하루평균 6시간 가량만 환자를 돌본다。

急患을 제외하면 상대하는 환자수는 12명가량된다。 이밖에 전화상담이 10여명쯤 있다고한다。 예약제임으로 환자는 일찍부터 병원을 찾아갈 필요가없다。 初診인경우 의사는 약1시간30분에 걸쳐 세밀하게 병세를 진단한다。 再診이면 보통 30분정도 걸린다는것이다。

이의사는 이만큼 시간을 들여야 환자의 증세를 충분히 듣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수있다고 주장한다。 「의사는 환자의 입장에 서서 대해야한다」는것이 그의 모토다。

치료방법도 번거롭지않다。주사를 놓는일은 드물고 간단한 처방전을 떼어준다。 아무것도 안하는것이 최고의 진료란는 태도였다。

비만서울의 종합병원들이 환자초만원으로 골치를 앓고있다。 병고치러 갔다 골병이 든다고할만큼 설자리가 비좁다。 病苦에 「病院苦」가 얹힌 二重苦의 현상이 날로 더해간다 (한국일보26일자1면)。

「3時·3分」정도가 아니라 「5·5·50」으로 「病院苦」는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보험가입자가 늘수록 이 고통은 가중될것이 뻔하다。 그런데 지방도립병원의 병상은 거꾸로다。 빈자리가 얼마든지 있다。 어쩌자고 이렇게서울로만 몰릴까…。

무턱대고「서울의 큰 병원」만 찾는 환자의 심리도 걱정이다。 그러나 더 깊은 원인은 의료체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환자들이 병세에 따라 이웃에 있는 의원이나 병원에 갈수있도록 제도적인「교통정리」가 빨리 이뤄져야 하겠다。 의료보험에 전국민이 가입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의료위기론은 아주 숨가쁘게 들린다。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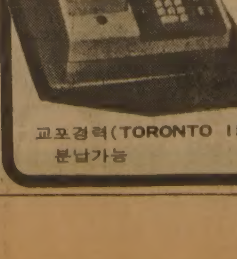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6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주간女性
절찬리에 판매중인 주간 여성지
새 가격 $2.50
(한국에서 송료 상승으로 인해 4월초부터 소매가격 50¢ 씩 인상을 알립니다.)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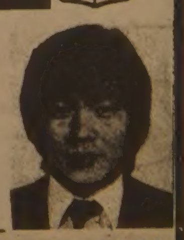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일보 특집판

取材팀
外信部 安炳璨부장 金炳武차장 申相碩기자 金善敦기자 李鍾九기자 盧海雲기자 兪爽根기자
特派員 東京 宋孝彬
LA支社 李梓昇차장대우 盧裕煥기자
科學部 李光榮차장대우
寫眞部 金龍逸기자 李基龍기자

구독신청은 533-2361

「모든事物의再現」에서 模造人間까지

컴퓨터萬能… 超現實의 세계

設計圖 넣으면 완공된 建物모습 등장
美선 映畵·宇宙·軍事부문에 實用단계
癌세포 映像化등 化學·醫學에도 轉機

단순畵面이 立體映像으로 生動化단계

최첨단을 달리는 컴퓨터과학자들은 최근 고도의 프로그래밍기술을 동원, 컴퓨터스크린에 입체영상·超現實의 세계를 창조하고있다.

컴퓨터에 생명을 부여하는 듯한 애니메이션(ANIMATION·生動化)기술이다. 그것은 2차원의 화면에다 생동하는 3차원의 세계를 재현한다.

수백개의 빌딩이 숲을 이룬 현대도시의 복잡한 구조물까지 컴퓨터는 입체적으로 제조해 낼 수있다.

그러자면 먼저 컴퓨터가 이해하는 용어로 각구조물의 수학적·기하학적 수치를 묘사해주어야한다. 그다음 도시의 각線의 방향이 달라질때마다 컴퓨터가 정확히 입체적으로 재생할수 있도록 수학적 좌표를 기억케해야한다.

이미 미국의 건축업자들은 컴퓨터·애니메이션을 이용하는 단계다.

컴퓨터에 건축설계도면을 프로그래밍한다음 버튼만 누르면 4분안에 배관·배선·난방시설등이 완벽히 갖춰진 건축의 입체영상이 나타난다. 컴퓨터는 영상을변화시키면서 背面·內部구조까지 구석구석 보여준다.

뉴욕의 디지틀·애팩츠·스튜디오社는 1930년대의 뉴욕 맨해턴街 타임즈광장의 4개블록을 재현시켰다.

이회사는「애니」라는 영화에 배경으로 쓰기위한 실험으로 타임즈광장 지역의 현건축물설계도를 컴퓨터에 집어넣어 50년전 그거리의 모습을 컴퓨터가 만들어내게 했다. 관람자들은 30년대의거리를 거닐며 개미나 볼수있을 정도의 미세한 구석까지 샅샅이 볼수 있었다.

컴퓨터·애니메이션에 의한 시뮬레이터(모조영상장치)가 최초로 사용된것은 항공훈련 분야에서다. 美국방성과 항공우주국(NASA)은 이미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영상에 의한 달착륙훈련을 실시해서 우주인들의 위험도를 체크했다.

美공군은 F16 신예기의 착륙, 비행, 저기공격등 각종 훈련을 시뮬레이터로 하고 있고 육군도 같은 방법으로 탱크를 핵폭발시 생기는 감마선으로부터 어떻게 방어할수 있느냐를 실험했다.

시뮬레이터가 군사분야에 총아로 등장하자 美에번즈·슈더랜드社는 5백만달러를 들여 해병대의 헬機공격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제작했고 각회사들도 이분야에 달려들고있다.

비행연습을 실제로 할 경우 1분에 1백달러의 연료를 소모해야하므로 시뮬레이터는 경제적이다. 더구나 추락사할 염려도 없고 실제로 비행훈련이 불가능한 폭풍우 안개 폭설등 악천후속의 훈련도 할수있다.

조지·루커스의「별들의 전쟁」이란 영화를 제작하는데 참여한 프로그래머 토렌·카펜터씨는 최근 고전적 기하학으로 분석이 어려운 아주 불규칙한 구조의 山을 훌륭히 입체영상화하는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아직은 나무·옷·머리칼같은 미세한 조직과 다양한 색깔로 이뤄진 구조물을 애니메이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카펜터씨의작품에서 나무들은 긴자루에 걸려 달려있는것같이 보였다.

컴퓨터·애니메이션은 보통 카메라렌즈의 초점이 제한되고 있던 불편을 극복하고 사방에서 무제한적으로 초점을 맞출수있게 함으로써 TV·영화에 새로운·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계에선 컴퓨터로 요술장이의얼굴과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까지 하고있다.

전기면도기의 성능을 선전하는 TV광고는 면도기날이 무성한 구레나룻 밑으로 들어가서 털을 깎는장면을 피부쪽에서 찍어 실감있게 보여주고 있다.

컴퓨터는 화학·의학분야에도 혁명을 일으키고있다. 최근 화학자들도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線과 球로된 분자구조모델을 내던지고 총천연색으로된 컴퓨터의입체영상 분자식에 눈을 돌리고있다.

스크린속에서 선과 점으로 이뤄진 영상은 분자와 분자결합과정을 생생히 묘사한다.

최근에는 컴퓨터로 분자를 둘러싸고있는 電氣層의 구조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환각제인 LSD의 분자전기층이 뇌신경작용제인 세로토닌과 비슷한것도 알아냈다.

또 어떤 약성분이나 생화학 물질이 인체내에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컴퓨터·애니메이션을통해 규명할수있을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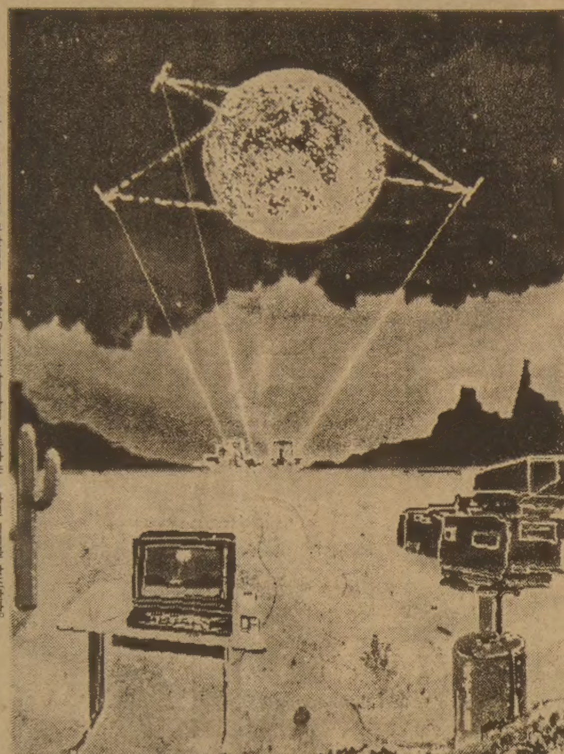
한의학실험실에서는 컴퓨터·애니메이션으로 초록색의 한호르몬이 노란색효소에 접근·결합하는 광경, 붉은색의 약물분자가 푸른색의 DNA(유전인자) 조직에 밀착되는 현상을 잡았다.

화학자들은 이미 종양세포의 분열을 막기위해 암세포 DNA를 영상화하는 컴퓨터를 고안해 실험을 서두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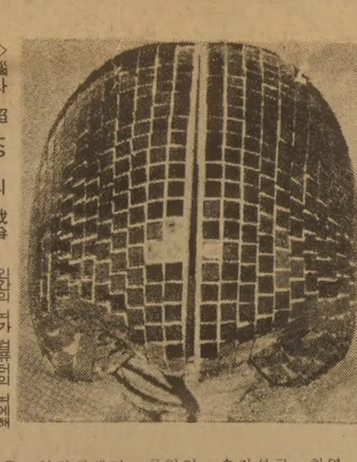
컴퓨터·애니메이션의 미래는 어디까지 펼쳐질 것인가. 캘리포니아州 샌타모니카에 있는 디지틀·프러덕션社의 캐리·데모스부사장은『컴퓨터 스크린안에 자연환경의 법칙들이 수립·적용되면 그에 따라 자연은 진화과정에 따라 변할것이다. 프로그래밍에따라 창조된 원숭이가 그다음에는 유인원으로 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기계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조인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세계가 창조될것이다』라고 대담하게 예견하고 있다.

『기계속의 인간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 정말 오고 있다는것인가.

【崔海雲기자】



◇컴퓨터·애니메이션의 무한세계—極寫實的능력을 발휘하여 생동하는 3차원 세계를 창조한다.



◇腦와 超LSI의 戰爭 인간의 뇌가 컴퓨터의 뇌에 해당하는 초고밀도 집적회로(超LSI)와 치열한 싸움을 벌일 날도 멀지않은것 같다. 컴퓨터 기술은 이미 인간의 五感과의 대화를 끝마치고, 컴퓨터가 자기자신을 교육할 수 있는 3차원의 무한세계를 바라보고 있다.「연산속도 나노(nano)秒(10억분의1秒)단위, 크기는 20년전의 2백분의1」. 컴퓨터가 진공관을 腦로 하여 탄생한것은 약40년전. 그 腦는 집적회로(IC)、고밀도집적회로(LSI)、超고밀도집적회로(VLSI)로 변하면서 경이적「進化」를 거듭해 왔다. 이 속도라면 인간의 뇌보다 앞서는 컴퓨터가 등장해 인간에게 싸움을 걸어올지도 모를 일이다. 사진은 실물 크기의 인간의 뇌에 超LSI를 붙여놓은 模型.

第2産業혁명의 시작

「OA」선풍·마이컴家庭시대로

日선 이미 事務員·書類·노동자없는 공장
運轉臺없이 口令으로 모는 車까지등장
健康 수시 체크할수있어 家庭醫 代役도

컴퓨터의 경이적인 발전은 사무원과 서류가 없는 사무실과 노동자가 없는 공장을 만들어 냈다.

모래알에서 만들어낸 작고 검은 半導體의 혁신은 마이컴과 知能로보트를 낳았다. 집에서 근무 할 수 있는 空想소설같은 시대가 다가 온 것이다.「현대의 魔法師」인 마이컴은 日本산업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있는가.

東京大手町에있는 일본굴지의 三井物産본사는 방대한 OA(오피스·오토메이션)혁명을 추진하고있다. 82년까지 마이컴을 장치한 사무기 5백대를, 84년까지는 2천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미 傳票처리는 물론 사내의 고시와 타이프등 일체의서류작성을 마이컴이 담당하고있다. 도대체 일류종합상사의 사무실에 서류가없고 캐비니트가없다. 비서도없다.

지방에 출장을 보낼경우 프로그램에서「出張旅費計算」항목을 꺼내, 키·보드를 누르면, 우선 일본전국의 지도와 三井物産의 지점이 화면에 나온다. 규우슈(九州)熊本의 半導體공장에 가고싶을경우,「熊本」를 누르면「그곳에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편과 열차시간표가 제시된다. 또 비행기와 열차등 교통편만 정해주면 교통비와 함께 호텔숙박비까지 계산한 精算書가 2~3분만에 나온다.

일본의 은행은 모두 이처럼 OA화됐으며, 일반기업도 人件費를 줄이기위해 차츰 사무실의 자동기계화를 서두르고 있다.

컴퓨터의 발달은 知能로보트를 개발시키고 무인공장을 등장시켰다. 80년9월초, 奈良縣大和郡에 있는 샤프공장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電卓機공장의 완전무인화에 성공했다. 로보트가 창고에서 부품을 꺼내 조립하고 포장과 출하까지 하는 일관작업을 완수했다.

아사다(淺田)사업본부장은『국제경쟁력에 이겨 나갈수있는 방법은 24시간 불평없이 일할수 있는 로보트의 도입밖에는 딴길이없다. 로보트의 도입으로 노동자는 줄었으나 그와 반대로 시찰하는 사람이 많아 안내원이 늘었다」고 즐거운 비명을 올렸다.

일본의 자동차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것도 따지고 보면 로보트개발에 의한 인건비절감에 원인이 있다.

일본의 로보트는 1967년 미국의 메탈·마키트社가 개발한 로보트를 도입、개발하여 68년 처음 산업용으로 활용한 것이다. 68년에는 산업로보트가 2백여대였으나 80년에는 1만9천9백여대로 급증했다. 로보트의 누적保有臺數는 日本이 7만6천7백대로 세계1위이며 西獨은 5천8백50대, 美國은 3천2백55대로 3위이다.

마이컴의 발달은 일본자동차공업의 전자화에 劃기적인 계기를 가져왔다. 81년가을 東京하루미(晴海)見本시장에서 열린 제24회 東京자동차쇼에선 전자장치로 치장한 일본차가 인기를 끌었다. 그중에서도 日産이 개발한 운전대없는 자동차는 1만명의 바이어를 아연케 했다.「左」「右」「停止」의 구령으로 자동차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외국바이어들은 환성을 울렸다. 모두가 세계의 최첨단을 달리는 일본 컴퓨터의 마술인 것이다.

이밖에도「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고도 달리는 엔진,「급브레이크」를밟았을때 옆으로 밀리지않게하는「앤티·스키드」裝置,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연료비를 절약하는 電子式엔진制御장치등 컴퓨터의 활용이 눈에 띄었다.

운전자의 앞에 장치된 受像機의 지도에 자동차가 달리고있는 주행궤도를 표시해 주고 또 가야할 지점만 지적하면 그곳으로 가는 가까운길을 화살표로 친절히 알려주기까지한다.

작년 일본에서 생산된 半導體중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된것은 4%인 3백90억엔밖에 안되었지만 자동차의 컴퓨터화가 연간 20%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의 電子化시대가 멀지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컴퓨터의 발달은 개인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의 가정의료기는 고작 체온기와 체중기 정도에 그치지만 마이컴의 발달로 혈압은 물론 심전도를 자동해독하는 장치가 곧 상품화 될것으로 보인다.

日立 라이프·사이언스 연구소는 83년까지 미니 心臟해독기를 개발, 상품화하고 심장의 고동을 探知해서 TV화면에다 병명과 간단한 처치를 지시하는 의료 마이컴을 개발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맥박, 심전도, 체온, 체중을 재고 이를 종합 진단하여 처방을 내리는「가정용 진단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마끼노(牧野)三菱종합연구소장은『집에서 목욕할때 간단히 건강을 체크하고 또 매일 排便을 볼때 이것을 자동적으로 분석하는 건강진단 방법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컴의 보급과함께 차차일본가정도 전자화를 시도하기시작했다.

福島縣의 二本松市에 있는 사또(佐藤泰明·35)씨는「마이컴家庭」을 꾸며 화제가되고있다.

현관의 벨을 울리면『누구십니까』하는 컴퓨터음성과 함께『들어오십시오』라고 응답하면서 문을 自動으로 열어준다.

안방에다 TV브라운관과 6개의컴퓨터制御장치로 꾸며놓은 이마이컴가정은 자동차부품회사에 다니는 佐藤씨가 5년전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5년걸려 꾸민것이다.

방온도의 자동조절에서 아침취사와 출퇴근에 이르기까지 짜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주인은 컴퓨터가 지시하는대로 움직인다.

3살된 장남을 감시(?)하기위해서 發信器를 부착시켰다. 밖에놀고있는 장남의 모습은 안방 TV화면에 환히 비쳐진다.

이 發信器는 장남이 감기로 열이올랐을 경우에는 벨까지 울려줘 건강관리까지 도맡아준다. 佐藤씨는 컴퓨터기기 도입에 돈은 들었으나 전기값은 30%나 절감됐다고 자랑이다.

사람이 컴퓨터를 지배하고있는지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는것인지 알수없게 됐다.

【東京=宋孝彬특파원】

◇인간과 대화하기시작한 知的로보트 『와인 한잔을!』 마이크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로보트 팔은 재빨리 와인병을 낚아 채고, 글라스에 술을 따라 주인앞으로 정중하게 들이민다. 손에는 촉각신경까지 있어 글라스를 깨뜨리지 않는다. 흉물스럽게 보여도 마이크로 컴퓨터가 두뇌부분에 내장돼 지능지수는 꽤 높다. 이 로보트는 노인이나 환자를 돌보도록만든 간호용. 東京大의 舟久保연구실이 개발했다. 이른바 복지로보트다.

사람의 平均수명 最高는 男84 女91세

醫協新報주최 學術세미나

17세기엔 14세수준

인간의 평균수명은 국력을 가늠하는중요한 指標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선진여러나라의 평균수명이 높게나타나있는것은 그 좋은 실례. 국력으로서의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어느 수준에와있고 그 현황과전망, 그리고 문젯점은 어떤것일까. 지난 22일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린「한국인의수명에관한 특별학술세미나」(주최 醫協新報, 후원 보건사회부)의 주요내용을간추려보았다.

○○○○○○○○○

사람은 몇살까지 살수있을까.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金正根교수는 사람이 살수있는 수명의 한계는 아직 정확한 定說이 없지만 1백50세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이론적인 인간의 평균수명의 최고치는 남자 84·0세, 여자 91·6세라는것.

인간의 평균수명은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역사적으로 보면 50만년전전기구석기시대 北京原人의 평균수명은 13·0세정도였다. 그리고 10만년전 후기구석기시대 네안데르탈인이 14·6세, 1만년전 신석기시대 크로마뇽인이 14·7세 정도였다.

이같은 인간의 평균수명은 17세기에 이르기까지 큰 변동이없었다. 고대희랍인이 15·7세 (남17·1세, 여14·3세), 로마인이 16·8세(남18·3세, 여15·3세) 17세기 영국 런던시민이 18·2세를 기록한것.

인간의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기 시작한것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스웨덴의 경우 18세기 35·1세 (남33·7 여36·6세)에서 19세기말 52·2세(남50·9세, 여53·6세)를 거쳐 1957년 72·3세(남70·8세, 여74·2세)로 뛰어올라 79년 75·6세(남72·5세, 여78·7세)를 나타내게됐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朝鮮왕조말 23·5세 (남22·6세, 여24·4세)의 수준을보였고 1925년 다시 30대로 회복한후 해방을맞던 45년 45·3세 (남42·9세, 여47·6세), 60년 57·9세(남54·9세, 여60·9세)를 거쳐 79년 65·9세(남62·7세, 여69·1세)로 급격한 성장을 보았다. 이는 같은해 일본의 76·2세(남72·5세, 여78·7세)에 비해 대략 10년의 격차를 보인다.

金正根교수는 과거 일본이 평균수명 10년을 늘리는데 25년이 걸렸다고 말하고 이렇게 따질때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을 지표로 따질때 일본에 비해 25년이 뒤진 후진국이 되는셈이라 했다.

金교수는 또 79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1백세 이상의 장수를 누리는 사람이 2백24명으로 나타나 있다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0·59명에 지나지 않아 이 역시 캐나다의 4·7명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생활이 보다 나아짐에 따라 1백세 이상의 장수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인구연구부 權仁赫부장은 현재 65세이상의 우리나라 노령인구는 1백50만명이지만 90년 2백만, 2천년엔 3백만, 2천25년엔 7백만, 2천50년엔 1천만명을 넘어설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도이제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관계되는 학자들이 협력, 대책을 마련하기위한 다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했다.

權부장은 또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복잡한양상을 나타내고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정부주도형 出産조절사업은 새로운 차원의 피임수단이 개발되지 않는한 한계점에와 있다고말했다.

한편 연세대의대 李東宇교수는 보건지표는 한나라의보건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것으로 되어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건강지표, 건강 상태지표, 보건의료 정책지표, 보건에 관련된 사회경제 및 건강에 관련된 건강관리에 관한 각종지표의 정확한 자료수집에 힘써야 할것이라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지표는 작성과정과 정확성면에서 여러가지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것이다.

【李光榮기자】

流星의 賦 <343>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前의 燈火 ⑱

魯軍들이 이렇게 기습작전을 전개하여 부분적으로승리하고 있었으나 전세(戰勢)의 전국(全局)은 말이 아니었다.

한성의 사태는—.

임금이 서울을 지키는 도원수(都元帥)로서 김명원을, 부원수로서 신각을,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서 이양원을 각각 임명했다는 것은 이미 말한바있다.

5월2일 김명원과 신각은 한강에 병력을 배치하고 제천정(지금의 보광동)에서 지휘하고 있었다. 이때 함경도 남병사 신할이 상명을 받들고 도착했다. 상명은 정병과 새로 무과(武科)에 합격한 50여명을 거느리고 가서 한강선을 사수하라는 내용이었다.

이편 벌써 적이 한강의 남쪽 기슭까지와 있었다. 조총을 쏘아대는 적의 기세가 사뭇 등등했다. 들 가득히 적으로 뒤덮인듯 했다.

김명원은 간담이 오그라붙어 무슨 방도를 취할바 모르고 있다가 이윽고 병기와 자재를 모두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는 군복을 평복으로 바꿔 입고는 도망치려 했다.

종사관 심우정(沈友正)이 어이가 없었다. 그는 김명원의 말고삐를 잡고 눈물로써 호소했다.

『도원수가 이곳을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중과부적이다. 이 꼴로 어찌 한강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고 김명원이 듣지를 않고 달아날 궁리만 했다. 그러자 심우정이 간원했다.

『한강을 버리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피해선 안됩니다. 꼭 가시려거든 임진강으로 가십시오. 임진강을 지키시어 적이 그 이상 북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김명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곤 임진강을 향해 달아나버렸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있던 부원수 신각은 저런자를 도원수라고 받들고 그 뒤를 따라갈 순 없다고 생각했다. 병기와 자재까지 강속에 던져버린 처지에 한강의 방어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신각은 한성으로 들어가 유도대장 이양원에게 이 사정을 알리고 같이 양주로 가서 후일을 기하기로 했다.

이무렵 왜장 가등청정은 한강 남안의 고지에 서서 한강의 북안(北岸)쪽을 바라보며 한성의 상황을 살폈다. 그런데 북안쪽의 갈대숲 근처에 배 같은것이 보였다. 갈매기가 날고있는 언저리에 배 같은것이 보였다.

『사람이 있고서야 어찌 저렇게 갈매기가 한가로울 수 있겠나. 누군가 저편으로 가서 저 배를 끌고 올 자가 없는가』

가등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소네마고로쿠(曾根孫六)라고 하는 놈이 강물에 뛰어들어 북안으로 헤엄쳐가 이모저모 살펴본뒤에 배를 끌고왔다. 그 배 말고도 많은배를 발견하여 다음 다음으로 끌고와서 군사를 건네는 한편 일단의 민가를 부수어 그재목으로 떼배를 만들어 가등청정의 대군은 무사히 한강을 건너 한성에 육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의 장병들은 무슨 계책(計策)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행동을 신중히 했다. 그들은 조선군이 성안에 대군을 대기시켜 놓고 기계(奇計)를 숨겨놓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일동안 한강연안에서 정탐을 놓고 살펴본 후에야 조심조심 남대문에 접근해 왔다. 조선군이 한강의 요지와 한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줄을 그들의 상식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71>

朴婉緖 作 金光培 畵

明暗 ⑤

『인재 걘좀 특별한데가 있거든』

수지는 인재의 매력을 이렇게 밖에 설명할수가 없었다.

『어떻게?』

『너희들은 몰라도 돼』

이렇게 되면 그 특별하다는 것의 잠재치가 갈지기를 타잡고, 상상력을 자극해서 환상을 만들어냈다. 특별하다는 말에 풍부한 환상이 합쳐지기는 듣는 쪽에서 뿐아니라 말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특별해』

그러나 그 소리가 어쩌면 빈 주먹을 쥐고 보석이나 진주를 감추고있는 것처럼 군 것과 다름없는 자신과 남을 우롱한 헛소리가 아니었을까 심각하게 의심하기 시작한건 최근의 일이었다. 인재는 틀림없이 있기전부터 별로 유수한 기업에 취직이 돼서 출근하고있었다. 잘된 일이었다. 그러나 특별한 인간의 출세치곤 너무도 범속했다. 특별한 인간답지 않게 그 범속한 출세에 안주할 모양이었다. 수지는 허전했다. 그렇다고 그가 어떻게 특별한 출세를 해야한다고 정해놓은 바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의 도전이 옳나자 그의 매력도 반감됐을 뿐이었다.

B대학 설립자의 동상이 있는 동산까지 오르자 후문까지의 비탈길이 곧장 내려다 보였다. 후문으로 나가면 시내와의 교통이 불편하고 또 언덕을 넘어야 하므로 후문까지는 복잡하지 않아서 보다 많이 져서 남아있었다. 그 많던 하객과 풍성했던 그 화사하고 드높은 분위기도 없었다.

이인재의 모습은 쉽게 눈에 띄었다. 혼자서 수지를 기다리고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인듯 보이는 노파의 앞에서 서 턴 전 차타리 곤혹감이었다. 그러나 인재는 완력이건 친 행동으로 그것을 감행했다. 가운과 학사모를 쓴 노파는 사슴에 매인것처럼 절망적으로 슬픈 얼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도 못했다. 마침내 노파가 울기시작했다. 인재가 우는 노파의 목에다가 갑자기 화환까지 걸어주더니 한편에 코미디언처럼 도식적인 웃음을 띠고 사진사한테 팔짓을 크게했다.

『웃으세요, 자아, 활짝웃으세요. 이 기쁜 날 눈물로 기념사진을 얼룩지게 하시면 안됩니다. 할머니 앨범의 눈물은 곧 마르지만 사진은 영원합니다』

모자의 술은 코미디가 아닌 것처럼 사진사는 어울리지도 않은 익살을 떨면서 웃겨댔다. 노파가 억지로 웃었다. 노파의 눈에 그 사진사가 얼마나 흉한 사람으로 보일까? 수지는 형언할 수없는 비애를 느꼈다.

한국일보

푸대접받는 敬老우대증

할아버지 할머니 外出꺼린다

本社에 "無情한 世態… 너무한다" 告發잇달아

혼자 서있으면 버스는 지나쳐…차장 눈총도

古宮·목욕탕·電鐵·극장등서도 툭하면 시비

"料金내고 대우받았으면"

따뜻한 봄철이 다가오는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외출」을 꺼린다. 아들딸이나 며느리가 그이유를 여쭤보면 버스편을 이용하기가 영 어려워졌기때문이라고 대답한단다. 정류장에 혼자 서있으면 대다수의 버스가 그냥 지나가버리기일쑤고 등을 밀리며 버스를 타더라도 경로석에 제대로 앉기가 어려운형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궁이나목욕탕에 가서도 요금시비가 적지않게 벌어지는것같은데 문제는 「경로우대증」이 (65세이상화대상시) 발급되기 시작한 지난2월이후 이 「노인푸대접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다는데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렇게 푸대접을 받느니 차라리 요금을 전액내고 제대우를 받는게 낫겠다』고 푸념하면서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을 거꾸로 이행하는 메마른 인정을 나무랐다. 한국일보사 「민중의소리」 담당자에게는 이같은 「푸대접」을 호소하는 고발편지가 잇따라 들어오고있어여기 몇편을 골라 소개한다.

『글쎄말이다. 웬일인지 버스가 다 그냥 지나가더라』 『어머님은 버스요금을 안내고 타시지요?』 『그런데 돈내고 탈때만 갈지않더라』 이대화는 서울銅雀區黑石1洞143의49 박애신씨가 친정어머니와 버스정류장에서 나눈 대화의 한토막이다. 박씨는 호소편지에서 잠실에 사는 어머니가 연세는 80이 넘었지만 건강이 좋아 늘 버스를타고 딸네집 나들이를 자주하는데 며칠전 이같은 봉변을 당했다는것. 박씨는 『딸이 아파 병문안 오신 친정어머니를 택시나 자가용으로 모시지 못하는 살림이 노부모님께 죄를지은 기분』이라고 밝히면서 버스업자와 운전기사들의 무정한 마음씨를 나무라면서 『오히려 버스요금을 내더라도 떳떳한 승객으로서 친절한 대우를 받고싶은것이 모든 노인들의 바람일것』이라고전했다.

이보다 심한경우로경로우대증을 빼앗긴 예도 있다. 전북 長水郡 天川面月谷里 한종석씨 (방위병)는 7순이 넘은 아버지를 모시고 버스를 탔다가 경로우대증을 제시한 할머니가 우대증을빼앗기고 욕설까지 듣는 현장을 목격, 분노를 참을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씨는 『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차장에게 사정까지 했지만 오히려 몰아붙이더라』면서 결국 지서까지 가서야 경로우대증을 되돌려받을수 있었다고했다. 한씨는 이럴바에야 무엇때문에 2~3천원씩주고 사진을찍어 경로우대증을 내겠느냐고 반문한다.

또 서울恩平區 應岩洞427 崔모씨는 『기차역 대합실에 마련된 경로석은 악취가풍기는 변소입구였다』고 지적했고 『시외버스의 간이 정류소에서 만일 노인혼자서 버스를 기다릴경우에는 거의모두가 정차하지않고 그냥지나가버린걸 여러번 목격했다』고 말했다. 또 시내버스나 전철의 소위경로석도 제구실을 못 한다고 지적한다.

崔씨는 『노인들이 제대로 대우를받기는커녕 모욕감내지는 소외감을 느끼게하는것은 모든젊은사람들의 공통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江西區 禾谷3洞294의8 김영진양 (17·高3)은 시내버스에서 경험한경로석에대해 『어린이가 앉으려는데30대 젊은여인이 잽싸게 밀치고앉았읍니다. 이때문에 어린이 엄마와 시비가붙었는데 뒤에서 「늙은이도 서서가는데… 경로석이 누구앉으라고 만들어놓은것인데…」 하면서 혀를차는 할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고 쓰고있다. 김양은 『이러한 현실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면 국위선양은커녕 국제적망신을 살까두렵다』고 개탄했다.

이밖에도 고궁, 극장, 전철, 목욕탕 등지에서 요금때문에 빚는 시비를 호소해온 편지도 많았다.

경로우대증은 80년부터 70세이상에게 발급했다가 지난 2월부터는 65세이상으로 확대했는데 대상노인은 1백49만8천여명 (보사부집계). 경로우대증을 가지면 ▲시내버스요금과 국공립공원 입장료가 전액 무료이고 ▲철도 (특급이하)와 전철, 일반고궁과 공원, 박물관, 목욕, 이발료, 사찰, 극장등이 반액이다. 【姜秉泰기자】

신현수 〈大邱市西區內唐1洞257의16〉

◇「벚꽃授業」에 童心활짝 釜山龍頭山 교외에 봄이 왔다. 활짝핀 벚꽃나무밑으로 교외수업을나온학생들은 마냥 즐거운듯 기쁜 미소를 감추지못한다. 【釜山=金海雲기자찍음】

◇梨花莊앞 뜰에서 거행된 雩南생신추모예배。프란체스카여사 (오른쪽에서 3번째) 등 가족들 왼쪽에 金一煥, 丁一權, 李應俊씨등의 모습이 보인다.

雩南 李承晩박사 추모예배

梨花莊앞뜰서 百7회誕辰기념

고 雩南 李承晩박사의 1백7회 탄신 추모예배가 26일 하오3시 梨花莊 (서울 鍾路區梨花洞1) 앞뜰에서 미망인 프란체스카女史 (83) 와 양자 李仁秀씨 (前明知大교수) 등 가족과 친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서울정동교회 李在股목사의 집례로 가진 이날 추모예배에는 丁一權, 李應俊, 尹致暎, 金一煥, 李淑鍾, 李益興, 愼道晟, 韓豹頊, 柳陽洙, 崔致煥, 片貞姬, 金在淳씨등 2백여명이 참석, 고인을 추모했다. 이에 앞서 프란체스카여사와 李仁秀씨 부부등 가족들은 이날상오 銅雀洞국립묘지로 李박사묘소를 참배했다.

용의자 成모君등 20명압축

행방감춘工員 李某도 추적

美文化院방화사건

【釜山=盧基泰기자】 釜山미문화원방화사건수사본부는26일 전국에 지명수배중인 李鎬哲 (24·釜山B大졸업) 을잡기위해 李의 연고지인 釜山市東萊區巨堤洞과 西區富民洞일대에 집중적인 수사를 펴는한편 사건당일 불온삐라가 뿌려진 국도극장관람객 가운데 행방을 감춘 李모씨 (25·공원·釜山市南區牛岩洞) 의 연고지인 大邱에수사진을 급파했다.

경찰은 그동안 학원과 종교계의 문제서클관계자, 문제학생등 4백여명의 사진을 목격자들에게 대조시켜 용의자들에대한 추적조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부산사건및 釜山大소요사태와 관련, 구속된 李鎬哲의후배 C、K、J군과 친구등을접촉, 내사한 끝에용의자를成모군등20여명으로압축한것으로알려졌다.

釜山 美文化院방화 丁淳喆은 관련없다

치안본부는26일 부산美문화원 방화사건용의자로 검거한 丁淳喆이 조사결과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것을 밝혀내고 80년12월9일 光州美문화원 방화혐의로 수배해온 전남도경에 신병을 이첩키로했다.

日本 文化財조사단 慶州유적지 돌아봐

【慶州】 日本文化의 원류를 찾아 慶州에온 日本지바일보 (千葉日報) 주최 한국문화재조사단 (단장 小川政亡·지바현문화재보호협회장) 은 26일 낮12시30분 崔潤鎭시장을 방문, 2천년전부터 日本서 전래돼온 언뿌리와 내한설명 씨 40kg을 전달했다. 조사단 일행 1백50명은 이날 석굴암·불국사·천마총·첨성대·박물관등 시내사적지를 돌아보고 이날하오 扶餘로떠났다. 이들은公州·扶餘·서울등지의 사적지를 돌아본후오는29일 귀국할 예정이다. 【鉉】

慧哲 스님에 誠金 줄이어

속보=십부전증을 앓고있는 사미승 慧哲스님(본보24일자11면)을 도우려는 독지가들이어 25일현재 2백87만5천원의 성금이 전국각지에서 더들어와 성금총액은 9백42만9천원이 됐다. 성금 내용은 다음과같다.

▲龍山區普光洞 익명의어머니 10만원 ▲鍾路區壽松洞 梵鐘社 10만원 ▲弘法院 10만원 ▲二和佛教社 5만원 ▲익명의 독자 1만원 ▲江西區禾谷洞956의23 김재원 3만원 ▲부산대인성보살 5만원 ▲대각사 익명의 신도1만원 ▲익명의 보살님 50만원 ▲〃 10만원 ▲江南區淸潭洞 시영주택10단지28호 유명순 5만원 ▲沈在洪 3만원 ▲신촌원불교 김천기(법명도기) 8천원 ▲中區南山洞 동신상가 나24호 예림사 최병선5천원 ▲남대문 뽀빠이상가 페티뽀이 박경호 2천원 ▲익명의 신도 5만원 ▲최청임 3만원 ▲정경희 10만원 ▲불광회원 20만원 ▲김복덕(경기도 안성군안성읍인지동427) 2만원 ▲大邱市壽城區中洞425의6 朴중기 1만원 ▲恩平區津寬外洞289의1 서정각행 10만원 ▲현해스님 5만원 ▲익명의 보살님(아가씨) 10만원 ▲한국일보독자 1만원 ▲〃 ▲조계사 신도(2명) 4만원 ▲익명의 보살님 (수표) 80만원 ▲익명의 보살님 1만원 ▲東大門區典農3洞65의17 조수행자 5만원 ▲延禧洞 송보유심 5만원 ▲익명의 신도(용천동아가씨) 5만원 ▲서울시경찰국 경비과 박경열 3만원

浦項에 연쇄殺人

한밤 鐵鋼회사 6旬경비원 被殺

防犯員등 2명 怪漢에 찔려 死傷

【浦項】 25·26일 양일간 포항경찰서관내에 2건의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새벽3시30분께 浦項해창철강경비원 이무용씨 (67) 피살사건에 이어 26일 새벽2시께 경북 迎日郡 延日邑龍德洞 제2급수장 부근에서 이마을 강경태씨 (29·포철직원) 가 20대청년이 휘두른 칼에 찔려 숨지고 순찰중인 이마을 자체방범대원 이유일씨 (31) 가 중태에 빠졌다.

이마을 김영수씨 (32) 에 따르면 부산방화사건 용의자 검문검색을 위해 마을 자체에서 방범대를 조직, 이씨와 함께 급수장부근을 순찰하던중 20대 청년을 발견 『어디가느냐』고 묻자 『꼭 알아야 하느냐』면서 가까이 다가와 갑자기 가지고있던 칼로 이씨의 배를 찔러 쓰러뜨린뒤 청년은 迎日邑쪽으로 달아났는데 김씨가 이청년을 뒤쫓아 가던중 피투성이가 된채 쓰러져 숨져있는 강씨를 발견, 추적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鉉】

大學教育협의회 小委員會 첫모임

대학교육협의회 발기준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權彝赫서울대총장) 가 26일하오 서울대에서 첫모임을가졌다.

서울대 高麗大 延世大등 서울시내 8개대학 총장들이 모인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오는4월중순 발족예정인 대학교육협의회 정관시안작성등을 논의했다.

전국대학의 총·학장을 회원으로 창립될 이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입시제도개선방안 등록금 교원봉급조정문제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한다.

떳목 뒤집혀 꼬마 넷溺死

25일하오4시께 경남 昌原市東邑洞 장골 저수지 (직경 1백m, 깊이 1.5m) 에서 이마을 裵경우씨 (40) 의 딸 은정양 (6) 과 은진양 (4) 자매와 金용준씨 (51·昌原市 召界洞130의129) 3녀 미남양 (9) 과 아들 윤이군 (5) 남매가 떳목을 타고놀다 떳목이뒤집혀모두숨졌다.

이 떳목은 지난달 28일 이마을 張모군(14·昌原중1년) 등 3명의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기위해 합판과 스티로폴등을 구해 가로 1.3m, 세로 1.5m의 크기로 만들어 저수지에 띄워놓은 것이다. 【鉉】

大邱 다미골에 山불

헬機동원 鎭火작업…계속 번져

【大邱】 26일하오 1시40분께 大邱市東區道洞山8 속칭 다미골 해발2백미터 지점에서 원인모를 산불이 나 10년생 잡목및 소나무 수백그루와 임야 4정보를 태우고 계속 인근산으로 번지고 있다.

불이나자 대구 동부소방서 소방차 4대와공군헬기1대, 동민및 예비군3백여명이 동원돼 진화작업을 펴고있으나 불은 때마침 불어온 돌풍을 타고 산 정상쪽으로 계속 번지고있다.

이날 산불을 처음 목격한 김상로군 (19·大邱市東區道洞673) 에 따르면 이날낮 1시20분께 동산복지원의 대남자 3명이 산불발생장소 부근에서 놀다가 이곳을 떠난뒤 약10분뒤에 불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鉉】

구독신청 배달사고

결혼예물, 보석및 시계…
미도파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通勤열차 運行시간 변경

철도청은 오는 4월1일부터 京釜 湖南 中央선등에 운행하고있는 29개 통근열차의 운행시각 (별표) 을 15분~1시간 늦추어 운행한다.

철도청의 이같은 운행시각 변경은 공무원및 공공기관의 퇴근시간이 하오5시에서 6시로 연장된데 따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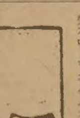
◇변경된 통근열차의 운행시간

선별	번호	발역	시각	착역	시각
영동선	537	영주	18:30	철암	21:00
	542	강릉	18:20	북평	19:26
동해남부선	872	부산	18:35	포항	22:55
	862	부산	16:00	대구	21:47
경북선	663	김천	18:30	점촌	20:08
	656	영주	18:30	김천	21:35
	667	점촌	18:25	영주	19:58
	662	점촌	18:30	김천	20:05
군산선	611	전주	18:15	군산	19:35
경부선	413	서울	18:45	천안	21:00
	411	대전	18:30	김천	20:35
	417	대구	18:45	부산	21:10
	406	대전	18:45	천안	20:30
	408	부산	16:05	김천	20:13
호남선	457	대전	18:55	이리	21:30
	459	이리	19:15	정읍	20:11
	465	광주	18:30	목포	20:30
	466	목포	18:30	광주	20:30
경전선	919	부산진	18:40	마산	20:32
	923	마산	18:50	진주	20:45
	930	순천	19:05	진주	21:15
	922	순천	16:15	삼랑진	21:35
	913	부산진	14:20	순천	20:33
장항선	594	장항	18:55	천안	22:35
충북선	639	조치원	18:30	제천	21:10
	640	제천	18:30	조치원	21:10
중앙선	525	영주	18:30	대구	22:43
	507	청량리	18:55	영주	21:40
	524	대구	18:32	영주	22:50

「돈가사리」

이틀만에 탄로난 어느 銀行員의 黑心

見物生心에 쫓기는 "信用은 生命"



국민은행본점 영업부 C씨 (25) 는 어그제까지만 해도 본점창구근무를 하던 당년25세의 청년은행원。그러나 급전직하, 그는 지금 유치장에 주그리고 앉아있다.

그는 지난18일상오11시께 대부계창구 근무중 한여자고객으로 부터 주인을 찾아달라고 들고온 지갑을 건네받는다. 『지갑을 1시간쯤 책상위에그대로 놓아둔채 주인이 찾아오면 줄까했지만 곧 점심시간이됐고』 견물생심일까. 그의 마음이변한다. 지갑을 상의주머니에 넣고 혼자 나가서 점심을 먹는다.

음식점에서 자연스럽게 펴본 지갑에는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1장 현금1만원, 크레디트카드가 들어있다. 그는 서둘러 점심을 끝낸뒤 근처은행으로 직행, 자기앞수표를 1만원권으로 태연히 입금시키고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가 체포된것은 바로 그이틀날. 하루를 무사히 보낸후 크레디트카드까지 써 먹으려다 걸려든 것이다. 19일 퇴근길에 S백화점에서 T셔츠와 과자등을 사고는 카드를 제시했다가 이미 분실신고를 받은 여자판매원에게 눈딱이 났다.

은행원들이 흔히하는 말에 이런 것들이있다. 「내주머니에 있는돈을 빼고는 전부 휴지로 보라」「창구에서 돈이 돈으로보이면 사고가난다」「황금을 돌처럼보라」…。 서양인들에게 「나이들어 믿을건 돈과 마누라와 은행적금뿐」이라는속담도있다. 직업과 관련된 경귀가 이렇게 많은데도 드물지만 따지고보면 이모두가 「은행의 생명은 신용」이라는 말의 다른표현일뿐이다. 신용을 잃을때 은행은 이미 은행이 아니다. 악덕사채업자 장나라계곡, 심할때는 사기꾼이 될수도 있다.

지난1년간의 은행범죄를 늘춰보면 은행의 신용은 상당히 타격을 받고있다. 은행에 고객의 예금을 8억원씩이나 빼내 또다른 고객의 부도를 막아주고 거액을받아챙긴 大邱의 4개은행사건, 은행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달아난 제일은행 부산중부지점사건, 수억원을 빼돌려 사채놀이를하다 덜미잡힌 한일 온라인시스팀의 헛점을 이용해 2억원을챙겨 해외로 도망간 모은행 영업부대리사건등 허다한범죄의 사고가 줄을잇고있다.

C씨의 범죄는 일용 이런 은행내 범죄보다는 가볍다고 칠수도있다. 그러나 그의 범죄는 최점에서오늘날의 「은행원지질」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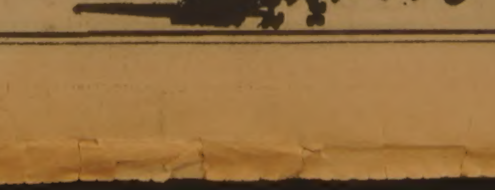
우리의 야담에는 쇠를 먹는 「불가사리」가 날뛰면 난리가 난다는 고사가 있다. 돈을 먹는 은행원을 「돈가사리」라 부른다면 그거 어디 예삿일인가。【朴珍烈기자】

★구라파 관광★

출발일	1982년 7월 22일
귀환일	1982년 8월 10일
기 간	19박 20일
요 금	$1,550.00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2인 1실), 식사(아침 17식 저녁12식) 구라파내 지상 및 해상교통 및 관광지 입장료, 한국인 안내자
방문지	영국(런던), 화란(암스텔담), 오지리(인스부루크) 이태리(베니스, 로마, 나포리 소리엔토, 카푸리, 플로렌스, 피사), 불란서(니스, 빠리), 스위스(제네바), 몬테칼로, 벨지움(오스텡)
예약마감	1982년4월30일까지 예약금 1인당 S200납부. 단) 취소시는 반환치 않음.
정 원	30명 선착순
기 타	잔액은 5월30일까지 완납, 요금은 예고없이 변동될 경우도 있음. 캐너더 일시 방문자도 가입할수있음.

★구라파 캠핑관광★

	1982년 8월 2일 ~ 8월 26일
기 간	25 일
가 격	$ 1,457.00
방 문 국	10개국(영국, 화란, 서독, 스위스, 리첸슈타인, 오지리, 이태리, 바티칸 시, 모나코, 불란서)
가격에 포함된것	왕복항공료, 숙박비(2인1조) 관광 및 안내(관광명소 입장료 포함)
추가비용	식사비(1일 3식) US 130.00현지에서 지불, 런던 호텔비(2박) CD 40.00
특 징	대상→남녀 대학생및 청년 야외캠핑 여행 식사는 동행요리사가 조리함. 한국인사회 저명인사 동행(감독자)
신청마감	1982년 4월 30일까지 신청금 S200지불 (취소시 S50은 반환하지 않음), 정원 40명(선착순) 캐나다 여권준비
연 락 처	신세계 여행사 712 BLOOR ST. W. Toronto ☎536 – 2155 또는 KUSA(한국대학생회)



❖구라파 여행은 여러분의 신세계로‥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김향범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R) 492-7525

한국일보 (특집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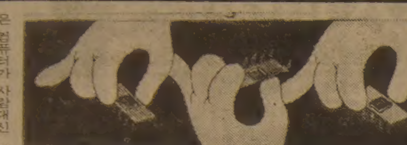
컴퓨터萬能 超現實의 세계

밥짓기·빨래등 무엇이나 척척

컴퓨터…人間生活과 얼마나 가까와졌나

집안250곳 컨트럴可能

排球감독·은행 相談도



실제로 컴퓨터는 지금 인간의 생활과 어느정도밀접해있을까. 그예를 일본에서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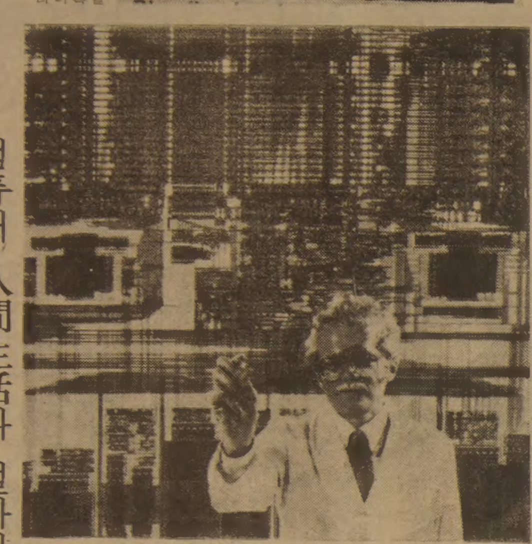
東京의 한복판 九段에있는 한 맨션의 최상층. 컴퓨터기기개발회사의 사장 요시다(吉田武明)씨의 자택은 컴퓨터가 사람대신 일상생활을 운영할수있도록 완전 컴퓨터시스팀화되어 있다. 목욕물데우기서부터 밥짓기, 빨래하기, 심지어 방안의 환기에 이르기까지 모든일을 컴퓨터가 맡아한다.

친구들은 그집을 가리켜 「깡짜쇼의 밤」이라고 부른다. 집안의 기계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30개를 사용해서 만든 컴퓨터가 컨트롤한다. 집주인 요시다씨가 직접만든 하우스컨트롤 시스팀으로 만드는데 5천만엔이 들었다. 이들 시스팀은 자그마치 집안의 2백50개소를 컨트롤한다. 설계 6년 완성하는데만 3년 걸렸다.

그러나 요시다씨는 주말이외는 이집에 머물지 않는다. 나머지 날은 아무런 기계장치없는 보통집에서 머문다. 『어쩐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양친도 이집에서 하룻밤을 보낸뒤 다시는 오려하지 않는다.

『그집에선 물한잔 마음대로 못마시겠다』

양친의 불평은 이유가 있다. 온도와 수질이 다른 수도꼭지가 10개가있어 일일이 구별을 하지못할경우 더욱 불편하기때문이다.



◇벨연구소의 신형 벨막TM32A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이 최종품질검사를 받기전에 쌓여있는 장면. 감독관인 로버트·크랍벡씨가그 앞에서 5원동전 크기만한 칩을 들고서있다. 【벨막32A는 요즘의 미니컴퓨터에 맞먹는 정보처리능력을 갖고있다. 【머레이힐(美뉴저지州)=AP】

마이컴의 스포츠에대한 응용은 배구감독을 실직시킬 경지에까지 왔다. 배구는 적과 아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면 이길 확률이큰 종목이다. 일본의 강자 히다찌(日立) 배구팀은 시합때마다 두대의 마이컴을 가지고간다. 후보선수가 시합광경을 보아가면서 데이터入力의 키보드를 누른다. 예를들면 상대코트 어느곳에 투하했는가, 누가 리시브했고 좋았는가 나빴는가… 등을 입력시킨다.

작전타임때 스위치를 돌리면 누가잘했고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처리한결과가 나온다. 상대팀의 어느위치가 제일약한지, 누가 호조이며, 아군의누구를 바꿔야하는가등을 정확히 알려준다.

음성을 합성해 목소리를 내거나 사람의목소리를 알아듣는 컴퓨터, 말하는기계는 은행일을 훨씬 수월하게한다. 은행업무중 가장 귀찮은것은 고객들의 잔고문의이다. 이런 서비스에 대응하려면 같은소리만 되풀이하는 녹음테이프로써는 불가능하다.

일본의 미쓰비시(三菱)은행과 스미또모(住友)은행은 고객의 잔고문의를 위해 말하는기계를 설치했다. 고객들이 전화를하면 기계교환양이 받는다. 『고유번호를 대주세요』 고객이 31××라고 대답하면 조금후 확인응답이 온다. 『31××이군요』 이쪽이 『네』라고 대답하면 즉각 『손님의 ×月×日까지의 예금잔고는 ×만×엔입니다』라고 알려준다.

물론 기계가 전부를 알아듣지는 못한다.

컴퓨터는 알게 모르게점차 우리생활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일본속의 컴퓨터풍경은 곧 우리에게도 낯익어질 것이다. 【李鍾九기자】

初期의 키보드에서 이젠 人間5感과 交際하는 伴侶로

컴퓨터의 기술은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지금까지 컴퓨터와 인간과의 대화는 주로 키·보드에 이해 이뤄졌다. 단추식 키·보드에명령을 전달하면, 컴퓨터가 말을 알아듣고 행동을해줬다. 이런상식은 깨져간다.

인간의 五感과 컴퓨터와의 직접 대화가 가능해졌다. 손으로 단추를 누르는 것만이 아닌 인간의 五感, 보고 듣고 말하고 접촉하는것등의 방법으로 컴퓨터를 사용할수 있게된 것이다. 결국 기계가 인간과교제하는 친구가된 셈이다.

텔리비전 전화에의한 회의가 있다. 말과함께 타지역 상대방의 얼굴을 화면에서 보면서 회의를 하는 것이다. 둘이할 경우 상대방이 눈앞에 있는것처럼대화가 가능하지만 각지역의 여러사람이 참가하는 회의가될경우 서로의 상대적위치나 입체적분위기가 전달안돼 기묘한 회의가 돼버리고만다. TV화면이 평면이기때문이다.

이럴때 회의 참가자들의 빈자리를한곳에만들어놓고 그자리에 본인의얼굴을 입체적으로 영상화한다면 모두가 한자리에서 하는것처럼 회의진행은 자연스러워질것이다.

미국 MIT공대의 네그로폰티 교수팀은 컴퓨터에의한 「말하는 얼굴」(Talking head)을 개발했다.

이연구팀은 또 접촉과위치이동에 의한 컴퓨터와의 대화를 개발해놓고 있다.

컴퓨터의 기술개발은끝이 없다. 인간의 五感이컴퓨터와의 대화를 가까이하면 할수록 인간과 기계와의 교제범위는 더욱넓어지고 더욱 친숙해진다.

컴퓨터文明의 批判

道德性결여…對應策세워야

產業社會 고용구조 뒤흔들어

情報의 盜用으로 경제파탄도

부녀자 暴行犯罪만 아직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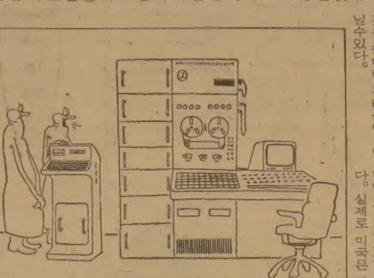
컴퓨터는 그가갖은 무한의 잇점으로 인간을 거의무의식적으로 컴퓨터문명속에 몰입케한다. 컴퓨터가 만들어낸 새로운문명, 「컴퓨토피아」는 理想鄕만을 뜻하지않는다. 컴퓨터가 갖는 부정적 측면은 뜻밖에도 많다. 지금까지의 기존사회질서를 깨뜨려 파문을일으키고, 사람으로하여금 새로운악을 만들어내게한다.

우선 컴퓨터가 산업일선에 나섬으로써 고용구조를 뿌리째 뒤흔들게한다. 사람들은 아직 이에대비해적절한 준비를 갖추지못한상태이다.

EC(구주공동체) 조사위원회의 공식자료는 엄청난지표를 예고하고있다. 앞으로 10년이내 데이터·프로세서, 워드·프로세서등 사무용컴퓨터의 등장으로 EC역내 현재1천5백만명의 화이트칼러 노동자중 무려 4분의1인 3백75만명이 해고당해야만 한다는것이다.

영국의 아펙스보고서(APEX·사무노동자조합)도 역시 25만명의 사무계노동자가 거리로 쫓겨나야한다고 예고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용로보트, 즉 생산공정의 컴퓨터화는 더욱 더많은 블루칼러 노동자들을 집단해고 시킬것이다. 앞으로10년이내 거리마다 실업자가 넘쳐흐를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커다란 두려움이 아닐수없다.



◇『우리의 새로운 소형컴퓨터는 5백명의 인력을 대신할수있지. 사람들은 우리가 교묘하게 고용인들을 해고시켰다고 여길테지만 말야』 【슈피겔誌】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惡을 컴퓨터범죄라고 부른다. 컴퓨터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컴퓨터범죄는 성한다. 기술의 첨단을 걷는 미국의 예를 들어본다.

『컴퓨터에 의한 범죄로서 아직 없는것은 부녀자 폭행정도뿐이다』

데이터전송에 전화회선을 사용할수 있어 네트워크에 가입만하면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다른 컴퓨터의 정보에 접근할수 있다. 이때문에 남의 정보를 훔치거나 악용 또는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예로 작년 뉴욕의명문 나라의 네트워크에 뛰어들어 한대규모회사의 컴퓨터정보파일을 파괴해버렸다.

더욱 무서운것은 이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한나라의 경제를 마비시켜 손쉽게경제파탄을 일으킬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컴퓨터교란은 핵병기보다 더욱 강력히 적국을궤멸시킬수있다고 평가하고있다.

우선 금융조직을 마비시키는 방법이다. 모든 금융기관은 온 라인을 통해 매일 수천억달러를 1천분의1초 스피드로교환하고 결재한다. 큰 은행일경우 하루 3백억달러가 전기선을 타고 왔다갔다 한다.

만약 이 돈들이 무엇인가의 원인에 의해 혼란되거나 거래 중지된다면 나라의 경제는 곧 마비될것이다. 그러나 우습게도 한회선에 단 한번 작동으로 1억6천만달러를 훔쳐낼수 있으며, 컴퓨터 송금시스팀을 마비시키는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는것이다. 은행직원을 가장한 침투, 또는 폭력에의한 점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극좌게릴라「붉은 여단」은 지금까지 28회에걸쳐 유럽각국의 컴퓨터센터에 시한폭탄화염병등으로 공격했다.

일본은 東京 오오데마찌(大手町)에있는 한빌딩에서 전국 7백3개의 금융기관의 돈을 온라인처리한다. 하루 1조엔이 결재되므로 이곳이 마비되면 일본경제는 쑥밭이 되는것이다.

컴퓨터는 역시 기계이다. 기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감정이 없다. 인간이 만들어낸것중 가장 고도의 정밀기계는 컴퓨터다. 앞으로 기술개발에따른 사회·도덕적 대응책이 없다면, 컴퓨터는 감정많고 잘못투성이의 인간을 더욱 나쁜길로 몰아붙이게 될지도 모른다.

제2로보트時代…人間無用

未來戰爭은 컴퓨터획득에

갑자기 우리는 컴퓨터의 폭발에 직면했다. 컴퓨터는 가장 미국적인 창조품이라는데, 그런 미국에서조차 깜짝놀랄만큼갑자스럽게컴퓨터의 來襲을실감하고있다. 골리앗의침공, 로보트의 칩공이라는표현은 컴퓨터기술 혁신의 충격을 말한다.

그런데 컴퓨터 혁명과 함께 밀려올 컴퓨터文化는 과연 어떤것일까.

『만일 컴퓨터를 총에비유한다면 총알이 어떤것인지 총알의 속도와 표적이 어떤것인지 아무것도알려져있지않은총이다. 그러나 총이아니라고 하더라도 컴퓨터를 지금까지의 도구와 기계에비유하는것은 요주의 사항이다』

컴퓨터學界의 長老라는 앨런·퍼티스교수(예일大學)의 말이다.

그러나 컴퓨터文化는 19세기 산업혁명의 그것과는 속도와 깊이를 달리할수 밖에 없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적 힘(근육)만을 결정적으로 보강한 것이었으나 컴퓨터혁명은 인간의 知的能力과 사고력(두뇌)을 크게 바꾸어놓는 성격의 것이다.

사람이 다른 생물과 구분된은 정보를 읽고 쓰고 기억하는 두뇌능력에 있고 그것이 오늘의 文化를 만들었는데, 컴퓨터는 그런 인간 두뇌의 영역을 침범하고있는 무한의 괴물이다.

컴퓨터는 反文化的 창조물인가

人間두뇌의 領域을침범한 怪物일수도

비즈니스·위크誌추산으로는 마이컴의 도입으로선진국에서는앞으로2년내에 일자리중 45%가 바뀌거나 없어진다고한다.

서독의 슈피겔誌는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30만명이 10년안에 컴퓨터로 실직하게 될것이라고 내다본다. 서독 다를슈타트에 있는 어느 제조공장은 「제2의 로보트세대」인 80년대에서, 2천명사이 모든 산업職가운데 최소한 3분의1이 사라지게 된다고 상황분석을 하고있다.

그에반해 컴퓨터 自動化의 선두주자인 제너럴·일렉트릭(GE)부사장 도널드·그리어슨은마이크로칩의 도움으로서 엽시간이 30분의1에서 50분의1까지 단축되고 있다고 희색만면이다.

슈피겔誌는 그런마이크로칩이 「저주인가 축복인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있다.

이특집은 컴퓨터 혁명은 계속되어온 기술발전의 하나가아니라 새로운 산업혁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가지 가능성은 『미래의 전쟁수행이 컴퓨터를 획득하기위한 전쟁, 혹은 컴퓨터간의 전쟁으로 발전할수도 있다』는것이다.

이특집은 또 컴퓨터에의한 오토메이션이 인간행위를 무감각하게 하여 인간자체의 오토메이션으로 몰고 갈수있을것인가 자문하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간단히 대답한다.

강력한 힘을 갖는 기술문명속에서는 기술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는 사람과 단지 단추를 누르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게되어「아는자」와「모른는자」사이에 칼날같이 분열하는 사회가 출현하며 사회구조는 걷잡을수 없는 카스트제도로 변화할수있다는 진단도 내리고 있다.

반면 컴퓨터의 힘을지지하는 진화론자들은 前代의 모든 기술개발의 경험처럼 컴퓨터혁명도 처음에는 대규모 실업을수반하지만 결국은 새로운 노동에대한 수요가 늘어나게되어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낙관한다. 과거에도 그렇게되는데 왜 독 이번만은 그렇지 않단 말이냐고.

『우리는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다다르고있다. 인류는 DNA재조합기술을 갖고 원자의구조에 손을대는 기술도 개발했다. 컴퓨터를 사용해 어린이 교육환경을바꾸는일이 가능하게 된것도 이에 획기적인 일이다.

컴퓨터로 인해 다음세대의 대다수어린이가 정신이상을 초래한 위험한도있고 知的으로 강력한 인간이 될 가능성도있지만, 그어느것이 되는가를 결정하는것은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를 둘러싼 인간이며 사회인것이다』

MIT의 세이머·페퍼트교수의 이같은 컴퓨터 來襲에 우리가 귀기울여야할 것이다. 【安炳瑀外信部長】

컴퓨터 操作못하면 '文盲'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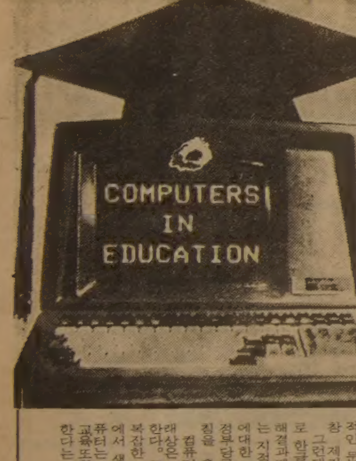
初級교육에 보조교사인 CAI方式등장

教室없어질 時代올지도

知識위주되어 人格교육 저해등 問題點

컴퓨터시대의 도래로 교육도 필연적으로 그속으로 휘말려들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았을지라도 컴퓨터조작지식이 없는 사람은 문맹자로 취급당할 날이 멀지않을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때가 되면 「읽을 줄 아느냐」 대신에 『컴퓨터를 다룰수있느냐』가 문맹률조사의 설문이 될지모른다. 컴퓨터는 62년부터 미국의 국민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기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실습용이었다. 그러나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와 주변장치, 특히 입출력장치와의 사이에서오는 엄청난 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개발된 시간분할체계(TSS)기술의 출현으로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활용하려는 꿈이 현실화한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글 入出力문제가 課題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대체로 컴퓨터 보조교육(CAI)이다. 컴퓨터를이용한 교육, 또는 컴퓨터가 교사역할을 하는 교육을 일컫는 이 CAI는 한개의 단말기를 학생각자 저마다 갖고 공부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컴퓨터 수업 역시 처음에는 국민학교에서 산수문제를 푸는등 비교적 간단한 실험부터 시작했다. 인간교사가 아닌 컴퓨터교사에 대한 학생의 반응이라든가 그에따른 학습효과를 조사·비교연구했다. 그결과학생들로부터좋은 반응을 얻자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도 컴퓨터가 이용될수 있게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라디오나 TV를통한 교육은 수동적이고 일방통행적이어서 주입식강의를 받는것과 다를바 없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CAI교육은 장의와 응답이 가능한게 특징이다. 이같은 CAI를 통한 상호작용학습에선 학생이 CRT(화면)에 제시된 문제에 정답을 대면 다음단계로 넘어가고 오답을 대면 몇번 반복시킨뒤 그래도 정답을 못찾을땐 거꾸로 복습을 시킨다. 그러므로 완전개별지도학습이기도 하다.

CAI는 일반적으로 ①훈련과 실습 ②개인 지도 ③모의실험등 3가지범주로 분류된다. 첫째 범주는 학생들한테 교사가 이미 가르쳐준것을 반복해서 복습시키는 경우이고 둘째 범주는 교사가 가르치는것보다 좀 깊은 수준의 내용을 컴퓨터선생으로부터 반복해서 설명듣는 경우이며 세째범주는 이미 알고있는 자료를 참고로 다른문제를 풀어보는 경우다.

그런데 이상의 3가지학습법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다. 미국의 크리에이티브·컴퓨터誌주필인 조지·블랭크씨는『연습과 실습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에 실증을 줄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한다. 그는『인간은기계에의해 삶이결정되고 영위되는것을 원치않는다』고 전제, 모의실험을 가장 바람직한 교육방법이라고손꼽는다.

CAI는 기계와 인간과의 상호관계라는 점에서 인간성상실과부로 논란을 빚었지만 미국매서추세츠공대(MIT)의 인공지식연구소소속 세이머·페퍼트교수같은 사람은 낙관론을 편다. 그는 「마음속의 폭풍」이란 최근저서에서『교실은 사회가 억지로 고안해낸 인공적이고 비능률적인 교육환경이다. 컴퓨터는 교육환경을 교실밖으로 옮길수 있도록했다. 이제 학교가 힘든노력과 비싼비용을 들여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마치 어린애가 고통없이 조직적인 교육을 안받고도 성공적으로 말을 배우는것처럼 많은 지식을얻을수 있게되었다. 이는 현재와같은 형태의 학교가 장차 존재하지 않게될것이라는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컴퓨터를 완전한도구로 이용할경우 어린이의 조기교육이 효과적으로 달성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최초의 여성컴퓨터박사인 李基浩교수(梨大문리대전산학과장)는『개인능력에맞춰 개인학습이 가능한 CAI는 인위적인 우열반편성이란 변칙교육을 불필요하게 만들것』이라며 낙관론을 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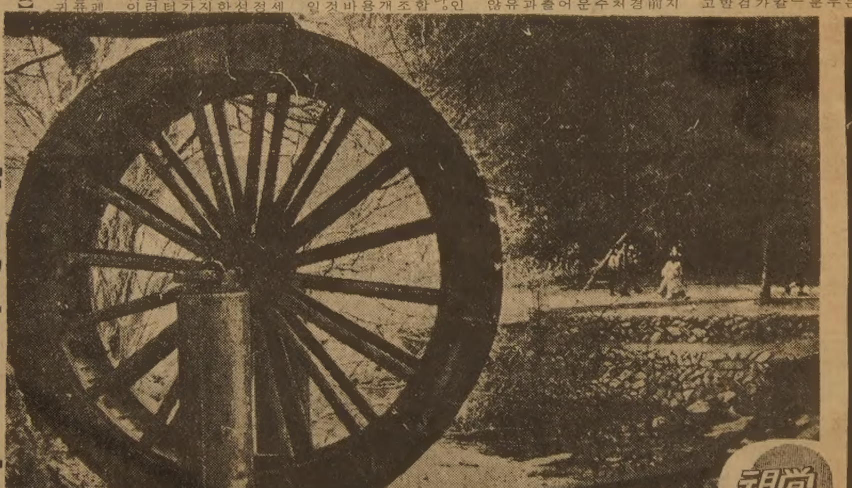
컴퓨터에의한 교육혁명은▲컴퓨터형태의축소▲대량생산에 따른 가격의 대폭인하▲『인간은컴퓨터의 노예가될지모른다』는컴퓨터공포증의점차적인해소등으로 더욱 촉진되고있다.

교육용컴퓨터의 정확한 이용법이 무엇이냐는 본질적인 문제는 미국에서도한참 제기되고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앞으로 한글입출력문제가 주요해결과제라고 李基浩교수는 지적했다. 李교수는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촉구했다.

컴퓨터가 교육에 미칠미래상은 아직 예측을 불허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잡한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 생존하기위해서는 컴퓨터는 필수적인 도구이며 교육또한 컴퓨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金善敦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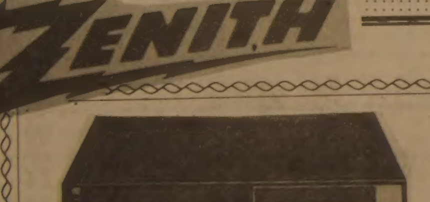
山寺입구의 물레방아…길손들에 鄕愁일깨워



◇충남公州의 東鶴寺입구에 있는 水車. 오가는 길손에게 물씬한 향수를 일깨웠다. 방아는 어디가고 혼자서 걸 돌고 있을까—. 【崔明奎기자】

봄철스페샬대매출

ZENITH



REG. $1495 SPEC. $1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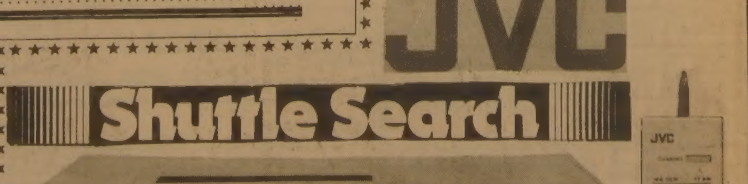
비데오는 역시 제니스 (BETA), J.V.C(VHS) 입니다

*14DAYS PROGRAM (14일간 녹음가능)

*HEAD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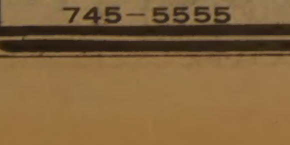
*REMOTE CONTROL 포함

JVC Shuttle Search



REG. $1599 SPEC. $1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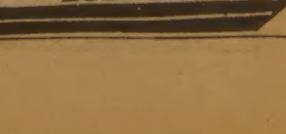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세계의 博物館

프랑스名譽의 상징

루브르 박물관

소장품 22만여점을 소장하고있는 세계미술의 寶庫 루브르박물관은

> 세계에는 많은 유명 박물관들이 있다.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이나 大英박물관, 미국의 스미드소니언박물관및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로마의 바티칸시티박물관, 스페인의 프라도박물관, 자유중국의 故宮博物院등이 그 대표적인 예. 이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박물관으로 짓지않고 王宮등 옛 건물을 그대로 사용, 내부시설만 현대식으로 바꾼것이 많다. 국립 중앙박물관이 중앙청건물을 활용케된다는 발표를 계기로 이와 비슷한 케이스의 세계유명박물관의 걸어온 길과 그실태를 알아본다.

처음엔 王宮…內部만 現代化

各시대 建築樣式살려 증축

당초 1190년부터 1213년사이의 필립·오귀스트王치하에 건축된 王宮이었다.

오늘의 루브르박물관이 있기까지는 프랑스영광과 프랑스문화를 바탕으로한 대담한 개혁이 뒤따랐기 때문이라는게 정평이다. 루브르王宮에서 최초로 그리스및 로마시대의 그림을 수집하기 시작한것은 16세기의 프랑스와1세때. 당시에 그림 12점이던 것이 루이15세에 이르러서는 소장품이 2천5백점에 달해 全宮殿이 미술관으로 모습을 바꾸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의회의 입법에 따라 루브르가 일반에게 처음 공개된 것은 1793년이었다. 이때만 해도 오늘날 박물관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왕실소장미술품과 컬렉션등이 뒤범벅이 된채 나열돼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31년에 박물관으로의 성격을 갖추면서 미술품의 종류별 시대별 구분과 건물의 성격에 따라 배치를 새롭게할 필요가 생겼다.

①이집트②고대오리엔트③고대그리스④로마제국 ⑤중세기조각⑥현대조각 ⑦공예품 ⑧회화⑨데생등으로 진열순서를 정하긴 했으나 조명을 어떻게 융화하느냐는 난점이 뒤따랐다. 무엇보다도 루브르王宮이 건축된후 여러차례 증축돼 각 시대의 건축양식을 이루고 있는데 따른 박물관으로서의 환경유지가 문제였던 것이다.

루브르王宮은 건축된후 증축을 거듭했고 그때마다 건물에 변모를 가져왔는데 14세기때 샤를르5세·16세기때 프랑스와1세 그리고 17세기에 들어서 루이왕조때가 가장 큰 확장공사였다고 볼수있다. 루브르박물관의 내부정리작업은 1945년 세계 제2차대전후에야 본격화돼 처음으로 조각분야의 진열완료를 보았다.

◇루브르박물관은 13세기초 건축한 王宮에서 출발, 가장큰 미술관으로 성장했다. 「세계미술의寶庫」

종류·年代별로 22萬점 진열… 1793年 일반에 첫公開

진열방법은 연대순에 따르되 외국작품과 프랑스작품을 병행전시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조각분야의 경우 루이18세가사들인 이집트 그리스시대 작품 나폴레옹1세가 보르게스王家로부터 구입한 대리석조각품중에 걸작이 많은점도 특기할 사항이다.

회화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학파별 시대별로 진열하되 실내벽면을 연한 홍색과 純白色으로 바꾸고 궁전벽을 뜯어내지 않고 기존 창문을 환기장치와 自然採光으로 이용하고 있다. 파괴하지않고 現代化할수 있다는 좋은 실례를 보여준 셈이다.

루브르박물관은 드골시대 문화상 앙드레·말로에 의해 대담한 개선과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프랑스영광과 문예부흥에 대한 집념으로 박물관의 그랜드·갤러리에 다른나라 거장들의 작품을 걷어 치우고 프랑스화가들의 작품을 진열한 것.

또 루브르 옛궁전의 전부와 새로 지은 남쪽건물을 비우게하여 보관창고에 갇힌 7백여점의 작품이 햇빛을 보게됐고 따로 루브르 맞은편에 있는 쥐·드·포므를 인상파 작품전시장으로 사용한 점이다.

루브르가 소장하고 있는 5천여점의 유화가운데 가장 소중한 작품은 16세초 프랑스와1세가레오나르도다빈치를 초빙하여 그린 성요한 세자 성·안나 머리장식을한 여자등을 꼽는다.

앙드레·말로에 의한 변혁은 역시 박물관으로서의 작품소장이나 국보전시라는 고정개념을 깨고 대중의 광장 또는 휴식처로 개방한 점이다.

일반관람객을 위해서 카페테리아 현대매점이 생기고 사진기 지참이 허용되는가하면 작품감상 편의를 위해서는 휴식처 개별전시와 고정전시가 상설 또는 기한을 정해 시행된점 또한 커다란 변화로볼수있다.

역대 제왕 또는 정치가들의 문예애호시책이 루브르박물관의 존재가치를 높이 성취시킨 것이다. 【李忠雨기자】

일본원정 권투선수
【한덕부·수원시세류2동십우주택 6동102호】

76개 認許可 복합民願

단일窓口서 처리한다

接受·검토·交付 일원화

한部署만 상대하도록

4월末께부터 단계별 施行

정부는 처리과정에 여러행정기관이 관련돼 민원들에게 불편을 주어온 複合民願의 접수, 검토, 교부에있어 창구를 一元化함으로써 민원인이 1개부서만을 상대로 民願을 처리할수 있도록하는 複合民願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총무처가 마련, 19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개선방안에 의하면 창구가 一元化될 民願은 건축竣工신고, 광업권採鑛인가, 상설시장개설허가, 예비군해외여행신고등 20개민원업무에관련된 76개 認·許可사무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이번의 1차개선사업 대상민원업무중에는 관계法令개정등 현재 조치가 진행중인 ▲건축허가 ▲토지와 관련된 인·허가 ▲관광지조성계획승인▲觀光이용시설업등록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복합 민원은 오는6월말께부터 단일창구민원으로 개선될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민원은 4월말이나 12월안부터 창구단일화가 시행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있는 이 복합민원개선작업은 ▲主된 法令이나 행정기관을 지정, 단일화하거나 ▲일선市郡등 종합행정기관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목적이 비슷한 인·허가를 통폐합하며 ▲條件附허가로 동시처리하는 4가지類型으로 돼있다.

개선작업은 多數기관이 관련된 認·許可업무에 대해서는 일괄접수, 합동검토, 일괄교부의원칙을 적용, 검토과정에서 행정기관간의 內部협의를 함으로써 민원인이 이곳저곳을 다니지않아도 되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축허가등 민원으로서의 빈도가 높은 분야에는 관계기관의 장이 정기적인 협의회를 설치, 합동 검토기능을 발휘할수있게 할 예정이다.

人聚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複合民願을 처리하기위해 지금까지는 건축허가 하나에만도 도로점용허가, 假設건축물 축조신고, 排水시설 설치신고, 汚水정화시설및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등 4가지의 허가·신고가 있어야 했으며 건축준공신고에도 ▲구내통신선로설비준공검사와 ▲汚水정화시설및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를 각각 받게 돼 있었다.

1차개선작업대상複合民願은 다음과같다. (괄호안은 관련認·許可數 또는 단일화되는 내용)

◇主된민원기관지정민원
▲광업권採鑛인가(10가지) ▲상설시장개설허가(13) ▲건축허가(4) ▲立地(토지)와 관련된 認·許可(8) ▲관광지조성계획승인(10) ▲관광이용시설업등록(13)

◇종합행정기관으로의 창구一元化민원
▲인쇄소등록(인쇄소등록과 공장설치신고를 시장·郡守에게 일원화) ▲공연장설치허가(공연장설치허가를 市·道지사에서 시장·郡守에게 위임, 건축허가와 一元化) ▲건축준공신고

◇類似목적 인·허가의 통폐합
▲木炭 생산업 허가(산림훼손 허가와 入火허가를 생략) ▲의료용구 제작업허가(체온계, 혈압계 제작업 허가삭제) ▲식품접객업 허가(酒類販制 판매면허 폐지) ▲예비군 해외여행 신고(예비군동원및 교육훈련 보류신고 폐지) ▲私設묘지 설치허가(산림훼손 허가생략) ▲국유림 대부허가(산림 훼손허가생략)

◇조건부허가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영업허가) ▲旅館시설등의 영업허가 ▲공인중개사 설치허가 ▲수산제조업 허가 ▲축산물 제조업 허가 ▲창고업 허가

팝토픽

「아이 러브 로큰롤」톱固守 美캐시박스選定 텐 톱 팝

英멜러디 選定 『세븐 티어스』1位

존·제트 & 블랙·하트의 「I Love Rock'n Roll」이 지난주에 이어 美國 싱글팝레코드차트의 톱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캐시박스에따르면또 2위의 스티브·원더의 「That Girl」과 3위의 J·게일즈 밴드의 「Centerfold」는 각각 2~3주동안 그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4·5위는 자리바꿈을 했다. 또 텐 톱팝에 새로 랭크된 곡은 베르티·히긴스의 「Key Largo」등 2곡.

한편 컨트리 웨스턴의 톱은 지난주와 같이 오크리지보이즈의 「Bobbie Sue」가 차지하고 있다. 【AP】

이번주 英國의 싱글판레코드의 톱은 굼베이댄스밴드의 「Seven Tears」가 차지하고있다. 독일의 4인조그룹인 굼베이 댄스밴드가 이 노래를 내어놓은것은 18개월전이며 英國 텐톱팝에 랭크되기는 몇주되지 않는다.

◇싱글베스트 10
(괄호안은 지난주순위)

▲1(1)=I Love Rock'n Roll (존·제트 & 블랙·하트)
▲2(2)=That Girl (스티비·원더)
▲3(3)=Centerfold (J·게일즈 밴드)
▲4(5)=We Got the Beat(고·고즈)
▲5(4)=Open Arms (저니)
▲6(9)=Make a Move On Me (올리비어·뉴튼·존)
▲7(8)=Pac-man Fever(버크너 & 라르시아)
▲8(6)=Shake It Up (카즈)
▲9(13)=Main Theme from Chariots of Fire (반젤리스)
▲10(11)=Key Largo (베르티·히긴스)

◇慶州신라고분에서 발굴된 유리잔. 大食의길을통해 서역으로부터 들어온 유물로 추정되고있다.

東西文化의 교류

4개通路로 이뤄졌다

全國역사학대회서 黃元九교수 발표

①초원의 길 ②비단의 길 ③大食의 길 ④향료의 길

제24회 전국역사학대회가 19·20양일간 仁川에있는 仁荷대학교에서 열렸다. 한국사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9개학회에서 모두 43명이 참가, 논문을 발표한다. 첫날인 19일 「동서문화의 교류」라는 공동주제를 놓고 4명이 주제논문을 발표하며 이에 따른 토론을 벌이며 이틀째인 20일에는 각분야별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갖는다. 다음은 이번대회에서 발표된 공동주제논문의 하나인 黃元九교수(연세대)의 「교통로와 그 주변」을 요약한 것이다.

오늘날 동양과서양은 아시아주와 歐美洲를 가리키지만 중국에서의 동서양의 어원은 12세기때 남해를 동서로 구획하여 불렀던 협의의 개념이었다. 이자리에서는 이같은 지리적인 구분보다도 역사적, 문화적인 차원에서 구분해 논의해보겠다. 동서양의 문화적·교류를 교통로에의해서 보면①초원의길 (Steppe road)②비단의길(Silk road)③大食의길(Saracen road)④향료의길 (Spice road) 의 4개및 4시기로 나눠볼수 있다. 이중 ①②의 길은 북반구에서의 동서육상교통로였고 ③·④의 길은 적도부근과 남반구에서의 동서해상 교통로였다.

종래에는 ①·②·④의 길만이 동서교통에서 거론돼왔지만 여기에 大食의 길을 추가하는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이길은 사라센인들이 개척한후 동아시아에 진출하고 회교문화를 보급했으며 중국인들도 이용한 동서교통의 중요한 루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은 ①·②의 육상루트와 달리 막연히 바닷길 (Sea-route ④의길과 혼동)이라고만 불려왔을뿐 세계사적인 입장에서④의길에 밀려 변변한 의의를 부여받지 못했다.

최초로 열린 동서교통로는 초원의 길이었다. 이길은 흑해의 북동부에서 동몽고에 걸친 북위50도의 초원지대를 가로 지른것으로 BC7~2세기에 걸쳐 활약했던 스키타이 기마민족들에 의해 개척되었다. 스키타이민족들은 흑해연안의 메소포타미아문명과 북방기마민족계의 문화요소를 동쪽에 전파시켰다. 특히 金문화(금, 은, 청동기포함)를 중국이외의 한반도등 동북아시아에 전파시켜 金문화권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비단길은 BC 1백39년(?)~1백26년에 漢武帝의 사절로 西域에갔던 張騫에 의해서 개척되었다. 이길은 그후 새로 개척된 大食의길에 의해서 쇠퇴하기까지 널리이용되었던 북위40도선과 그 이남의 오아시스지대를 가로질렀던 동서육상교통로였다. 비단길은 초원의 길보다도 교류의 질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길을 통해 동서는 서로 使行을 교환하는한편 각종 문물의 교류를 이루었다. 이 교류의 전담자는 자급자족에 만족했던 중국인보다도 오아시스생활에서 기만이 다듬어진 서아시아의 粟特人들이었다. 慶州고분출토 드러난 유리제품등 古新羅속의 서역문화가 동서교류를 증명하고있다. 이길은 몽고제국이 쇠퇴해지면서 몰락했지만 얼마전부터 부분적이나마 근대적인 교통로로부활되고있다는 소식이다.

사라센인들에 의해서 개척된 大食의길은 페르샤만에서 인도양―마라카해협을 지나 남양제도와 남중국의 여러 항구에 이르는 북위20도선의 동서해상교통로이다. 8세기 초기부터 15세기말 유럽인들이 동양에 배를타고 올때까지 8백여년간 계속되었다. 이 길을통해 이슬람세계에서 발달한 수학, 천문학, 지리학등 사라센문화와 회교, 많은양의 향신료들이 중국에 전파되었다.

西歐東漸의 길이라고도했던 향료의길은 유럽의 바스코·다·가마가 아프리카대륙의 남단을 돌아 남반구를 거슬러 인도, 동남아시아에 찾아오기시작한 1498년부터 수에즈운하가 개통됐던 1869년까지의 3백50년간을 보통말한다. 이 길은 그동안 大食人 또는 이탈리아 상인들의중개에 의해 거래되었던 아시아의 재화들을 유럽인들이 직접 교역하기위해 개척되었다. 이길을 개척한후 유럽인들은 직접 인도 또는 동남아시아로 부터 재화를가져가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유럽인들의 침략이 본격화되었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Y—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3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66-4918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 W.	741-5411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30 수요예배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10: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후 2: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0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7: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 V. 예배 8:30~9: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선교교회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성령교회	김관선	새벽예배(토, 일) : 아침6시 금요성경공부 : 저녁9시 · 주일오후 2:00	379 Kenneth Ave.	275-4650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발식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서울식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동양식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일식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복식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고려식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W.(2nd Fl.) Tor.Ont. M6G 1L1
☎ : 533－938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약국

돈밀약국
전화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 남 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문 정

양장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W. ☎ : 535－4441 디자이너 MR.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냉장고·에어콘S 749－3178
시설·수리·판매 김 진환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 : 221－5441 미스타 이

여행사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제일여행사
649 A BLOOR ST.W.(김 종조 종합보험 옆)
☎ : 535－2377
유 지원. 신 용욱

북미여행사
376 Queen St.E. Tor.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운전학교

오행근 운전학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창정
1559A EGLINTON W.TOR.ONT. M6E 2G9
☎ : (B)789－7351 , 789－7352
대표 이인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W. ☎ : 535－3520 곽 호 중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주보 •명함 •청첩장 •책자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윤 종 대 ☎ : 493－8894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우

장의사

장의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43, (R) 493－8792 송 창 섭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CO. PICK UP & DELIVERY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873 Queen St. W. 전화: 366－2673, 366－2206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 종합회계사무소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 A Bloor W. ☎ : 533-7353(B)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W.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박

학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960－0074

Y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E.(Yonge St.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전화: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Jamestown)박영숙

태권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1968 WESTON RD.(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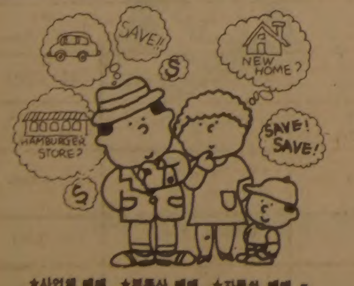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자동차 매매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E.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모든 것을 사고파실 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귀 사업체는 —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 신청은
☎(416) 533~2361~4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크레딧·카드를
使用하세요.

한국일보의 広告料金 및 購読料는 여러분의 便利上 VISA 나 MASTER CHARGE를 利用할 수 있읍니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한국일보 각 식품점에 배달하실분 구함
(화요일과 목요일)
※영문, 한글타자에 능하신 분으로 식자 배우실분
구함(남, 녀관계없음)
☎ : 533−2364

"급 구"
애기 보아주실 할머니 구함. (서부지역)
전화: 241−4755

스토아 유경험자 캐셔구함 (남,녀관계 없음)
학생 환영함. FULL TIME도 가능함.
오후 4시~오후 9시까지
전화: 368−8147(오전중에 연락바람)

유 경험자 캐셔 구함.
☎ : 656−3020

여자캐쉬어 유경험자 구함
(동부지역) 전화: 465−3132 Mrs. 유

1) 꽃집에서 일하실 젊은 여자분 (다운타운 지역)
2) DONUTS SHOP에서 일하실 젊은 여자분 (미시사가지역)
(Burnhamthorpe Rd. W. × Mavis)
시간 : 8 am ~ 4 pm(Full Time)
: 2 am ~ 11 pm(")
월 ~ 토 전화: 769−9854, 762−1572

입주하셔서 4명의 아이와 가사를 돌보아 주실분 찾습니다.
전화 : 827−7057 Mrs. 최

매매및 양도

2층에 2 베드룸이 딸린 그로서리 스토아매매. 개인사정에 의해 급매코져 함. 좋은 조건에 팔 수 있음.

K. C. HERLT REAL ESTATE CO.
TEL : 487−8187 Mr. Martin

맥스 밀크 프렌차이스 팝니다.
연락 : 368−0686, 292−2024 (저녁)

여자용 오메가금시계 급매.
(Brand New, 보증서 포함)
전화 : 533−2364 Mrs. 김

가게 급매(4 베드룸 건물포함)
주매상 : $3,500~$4,500
가격 : $84,000 + 스탁 (First Mortgage 13.5%,$51,000
Second Mortgage, Bank에서 $20,000 가능)
전화 : 1−383−8232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연결된 2층 건물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7개의 방, 4개의 침실 그리고 차도가 딸려있음.
좋은 상업지역, (PAPE × DANFORTH)
수퍼마켓 (WOODBINE × DANFORTH)
한가족이 하기에 꼭 적합한 사업입니다.
아스킹: $35,000 주매상: $7,500
OPEN HOUR: 6 DAYS/WEEK 9a.m. − 6p.m.
CALL JOHN GEORGAKOPOULOS 전화: 493−6250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주매상:$3,000 렌트:$515(하이드로 포함)
전화:694−7848

"급 매"(아파트 밀집지역)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7,500 ☎ : 248−0823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684 St. Clair.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코너에 위치한 상업, 가정집 포함한 드라이크리닝
사업, 13% 몰개지.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드라이크리닝에 필요한 일절 장비 팔고자 함.
중앙지역.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Call, Tony ☎ : 751−1947 7 a.m−7 p.m.

조그만 버라이어티 스토아급매(로타리오 머신
있음) 주매상 : $2300, 렌트 : $350(월)
714 Scarlett Rd.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지렁이 사업을 하실분에게, 74년도 대형
벤트럭있음(깨끗하고 콘디션 좋음)
의자와 박스도 구비되어있음. ☎ 651−6543(Mr. Lee)

"햄·버거 SHOP"
주매상 1,200 렌트 350 리스 3년6개월+5년 옵션
아스킹 $59,500($25,000 다운페이)
전화: 733−2008 마이클
: 781−3341 Mr. 박 (오후 6시 이후)

COIN LAUNDRY
Private, New System, Address:3412 Dundas St.W.Tor.
30 Wash Machine, 11 Dryer,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 $65,000(Only one price)
Profit rate: 37%, TEL: 762−1264

장래성이 확실하며 급성장이 기대되는 새로 지은
Mall안에 Convience Store매매. 모든 장비 갖춰 있음.
☎ : 267−8747 Mr. Sherman

가정의 벗 한국일보

40여개의 가구달린 방을 가진 최고급 ADULT 빌딩
총년수입: $215,000 다운페이: $200,000
전화: 635−6847

타 사업관계로 선물쎈타 급매
전화: 535−2143 Mrs. Lee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크리닝을 겸해
할수 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배더스트×로렌스)
오전 10시~오후 8시 ☎ : 783−0134

Smith Corona 영문전동타자기 $500
최신형, New, 사무용이나 학생용으로 무난.
☎ : 533−2364 김.

생선가게 팝니다. (퀸스웨이×로얄욕)꼭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람)K & R(Sea Food)
☎ : 259−1585(Mr. Joe Bondreau)364−3883(Frank)

상류 미시사가 지역 (PRIVATE SALE)
4 베드룸, 2730 Sq.ft.의 2층집.
FIRE PLACE 및 견고한(돌) 전축.
그 외 많은 좋은 조건의 EXTRA
문의: 820−0748 피 터

좋은 위치에 자리잡아 많은 단골손님을
갖고 있는 미용실 팝니다.
장비 : 드라이어(6개), Heat Light, Styling Chairs(5개)
Basins(3개), Waiting Area
전화: 255−9324 Carmen

하우스 렌트

2베드룸 (Flat) 세놓음. (6시이후연락바람)
$350(월)+가스+하이드로, Stove냉장고 있음.
크리스티 · 블루어 써브웨이중간☎851−1314

셋방 있음.
1 베드 · 룸 + 부억
653A Bloor St. W. 전화: 533−0168 (Mr. 김)

방세놓음(월 : $170, $140) 독신자환영
Pape Subway에서 1블락거리
☎ : 282−0236, 466−3764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황용현복덕방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B) 449−8644~5, (R)286−1548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이훈모 부동산 ☎ : 225−1204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A.E.LEPAGE (우덕이)
☎ : 741−9170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김 종 조 종합보험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빅·세븐
678 Bloor St. W. ☎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 : 869−0589, ☎ :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366−0960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Mr. Kim
시설및 수리(상. 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 : 425−8585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669−5784 미스타 심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식 당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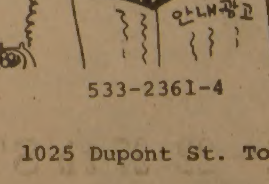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클 링 턴 하 우 스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김 영 규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

* 한국일보 안내광고 *

'82~'83 재미교포 사업의 길잡이!!

재미한인 기업년감

재미 한인 기업 년감 편찬 발행 취지

한국일보 뉴욕지사에서는,한국 및 북미에서 날로 발전하여 가는 한인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신속한 경제 정보를 교환 제공하고, 기업체 사이에서의 상호 협조 및 유대 강화를 돕기 위하여서《**82—83 재미 한인 기업 년감**》을 편찬 발행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사업은,한국일보 뉴욕지사가 주관하고, 북미 안에 있는 한국일보 전 지사들이 협조하여서, 가장 정확한 재미 한인기업 년감을 편찬할 것입니다.

이 년감을 통하여서, 현재 북미 안에서 운영 발전하고 있는 한인 기업체들의 현황, 기업 경영의 개선책 및 국제적 경제력을 쌓아 올림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80년대의 한국 경제 발전과 한인 기업의 발전 면모를 직관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재미 한인 기업가들이 앞으로 이룩하여 가야 할 경제성장의 길을 모색함에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한국 기업체의 재미 지사들은 물론이고, 북미 안에서 이룩한 주식회사와 그 지사들, 그리고 개인 기업체로 운영되는 모든 기업체들이 이 편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서, 뜻하시는 바의 발전을 이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 상: 북미 한인 기업체와 북미 주재 한국상사, 지사 및 개인기업체 (카나다 포함)
신청마감: 1982년 4 월31일
접수방법: 한 기업체가 신청서와 신청비 $ 100를 동봉하시면 됨
특 전: 년감이 발행되면, 년감 1권을 우송하여드림 (송료 본사 부담)
제 출 처: THE KOREA NEWS, INC.
THE KOREAN BUSINESS YEAR BOOK IN AMERICA
42-22 27 TH ST, L.I.C, N.Y. 11101
(212) 784 - 4500

목차

1.수록 기업의 기준
전미주 기업체 주재상사, 지사, 합자회사 일체를 대상으로함.

2.업종분류
전미주에 미정부, 주, 시로 부터 등록된 기업종류에 대체를 따랐음.

3.수록 순서
업종별로 가나다 순서에 따랐고 한기업체가 여러 업종을 가지고 있을때는, 대표 업종을 기준으로 삼음.

4.자료 수집 방법
직접조사(방문, 전화문의)와 간접조사(우편, 협회, 단체, 관련 업체)에 의존 함.
단 : 상기 방법으로도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지역 한국일보 신문 혹은 자매지에 보유된 자료로 사용함.

5.부록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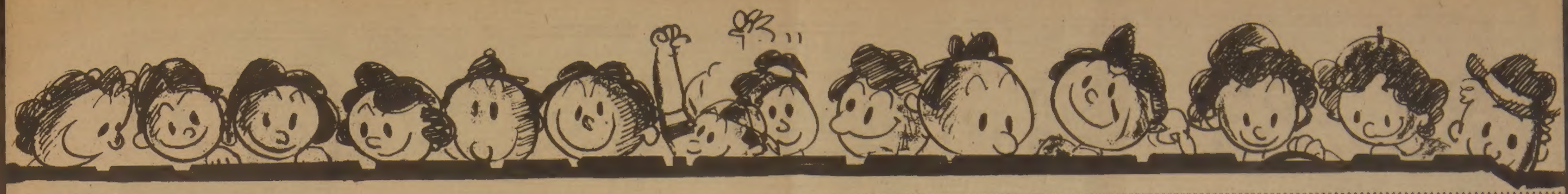
'82-'83년 재미 한국 기업 년감 신청서

대표자명 (영어)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본 적 특별시 (도) 시 (군)
사업명
설립 년 월 일 년 월 일
경영 형태 개인경영 ( ) 주식회사 ( )
자본금 $
본사
종사원수 전화 ( )
주요취급은행
사업내용 (상세히)

※ CHECK나 MONEY ORDER로 TO : THE KOREAN BUSINESS YEAR BOOK IN AMERICA.

주관 : 한국일보 뉴욕지사

42-22 27th ST. L.I.C., N.Y. 11101 TEL. : (212)392-5671(임) (212)784-4840(임)



한인식품 구매주식회사 사은대매출

세일기간 : 2주간(3월26일~4월10일까지)

친애하는 고객여러분! 그동안 이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심 양면으로 애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 4개식품점(삼복, 서울, 제일, 한밭)이 단결하여, 한인식품 구매주식회사를 설립하고 3만교민을 위해 보다 좋은 써비스를 하게 되었읍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원을 바라면서 우선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파격적인 가격 -----

가주미(일명 장미쌀) 50LB $15.95

DY참기름		7.95
가도야참기름		8.95
삿뽀로라면(비프, 취킨)	24개	7.95
DY우동국수	5LB	3.99
DY막국수	5LB	3.99
DY소면	4LB	2.99
DY당면	1LB	1.99
DY엿기름	1봉지	1.99
다누끼우동	1BOX	19.50
기스메우동	1BOX	19.50

DY메주가루	1LB	1.99
DY고추가루	1LB	2.99
(김장용, 고추장용)		
중공산 새우젓특등품	1LB	1.59
회조개	2LB.BAG	7.99
DY낙지	2LB.BAG	6.99
멍게	1LB.BAG	3.99
해삼	1LB.BAG	3.99
조기	33LB(1BOX)	42.95

====== 토론토 전역에 무료배달 ======

한밭식품 : 274—5401
서울식품 : 291—8317
삼복식품 : 743—8270
제일식품 : 532—1054

2ND CLASS MAIL NO. 5248